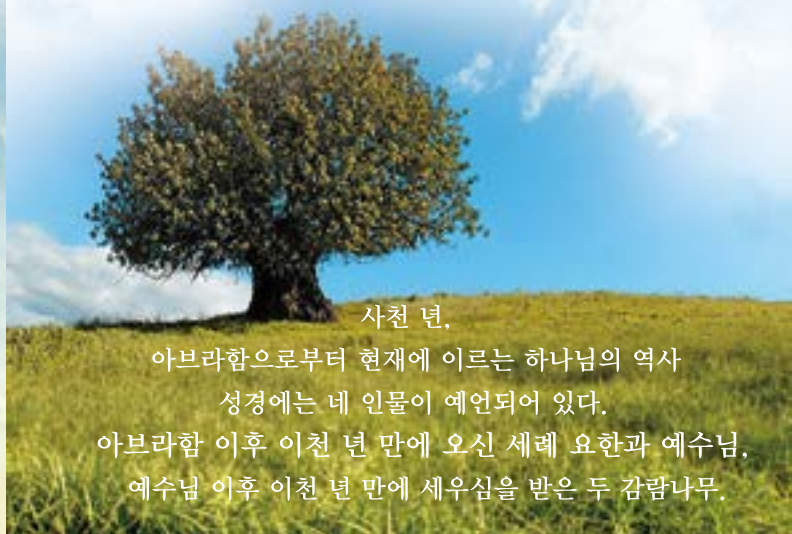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6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발행일 | 2012년 2월 17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전화 | 031-582-7273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한국기독교에덴성회 <http://edenholychurch.or.kr>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06-9

ISBN 978-89-6449-223-9 (전 19권)

값 15,000원

에덴의
메아리 6



저자 (1981년 당시)



꿈의 성. 종합운동장 위에 위치한 꿈의 성



꿈의 성 야경. 골프연습장에서 바라본 꿈의 성 야경

Prologue

“책머리에”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맨주먹으로 시작된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다. 그 동안 우리는 온갖 역경을 헤치고 고된 시련을 이기면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설교집만 해도 여섯 권이나 나오게 되었으며, 이어서 제7집도 계획하고 있다. 주의 종은 단상에 선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새로운 깊은 말씀을 터뜨려 왔으며, 또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터뜨릴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요16:13)라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령 사업에 착수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5)는 약속대로 오순절 날 120문도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연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2천 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간간이 일어났었다. 그 자취를 대충 더듬어보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큰 나라들을 일으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성령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독교 초창기에는 지중해 일대를 정복한 로마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하게 했으며, 종교개혁 후에는 세계의 사상계를 지배한 독일을 앞세워 복음을 전파하게 하게하고, 이어서 국제 외교계를 주름잡은 프랑스로 하여금 포교에 힘쓰게 하고, 다음에는 사해(四海)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이른바 ‘해 지는 날이 없는’ 영국을, 그 후에는 세계에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을 각각 선교의 중심 무대로 삼고 역사하였다.

그리하여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이탈리아의 가톨릭교회에서 오순절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 후 오래 뜸하다가 16세기에는 독일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는 프랑스에서, 19세기에는 영국에서, 그리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는 미국에서 각각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컨대 미국 캔자스의 토페카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며, 1906년 팔함(Charlex Fox Parham)이 텍사스의 휴스턴에 세운 신학대학은 이 역사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이 성령은 ‘철의 장막’도 뚫고 들어가, 1960

년에 소련에서도 이 불과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한 신도가 무려 25만이나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공산권 종주국인 소련을 중심으로 그 위성국가에 대해 선교운동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불의 성령을 받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등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 날 내린 성령의 은총을 받기를 무척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데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는 주님의 ‘두 증인’(계11:3) 곧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는 성령의 역사는 이들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와는 양상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 즉 초대교회의 오순절 때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다채롭고 풍성하고 또한 강렬하다. 이것은 이 역사에 동참한 일부 성도님들의 은혜 체험을 엮은 신앙 간증담(제1집)에 요약해 실려 있는 것처럼, 기독교 사상 일찍이 어디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즉 그것은 말씀 그대로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계11:4) 하나님의 두 종을 내세워 내리시는 불과 이슬과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 오직 이 땅에서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음직하다. 그것은 선교 활동의 활력소로서가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해 돋는 나라 한반도에서 / 인 치는 역사 시작되네.’(588)라는 찬송가 그대로, 요컨대 십자가의 군병을 단시일에 많이 배출하여,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제 앞선 하나님의 종은 이를테면 씨를 뿌리는 역사를 마치고, 나중 하나님의 종이 그 뒤를 이어 알곡을 거두는 역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성경에 명시된 바요(속14:7-8, 계14:16) 또한 그 동안 성령의 허다한 증거에 의해 이미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교계에서는 조만간 이 역사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며, 또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유념하는 오늘의 신앙인이 간과할 수 없는 큰 과제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이 설교집이 세상에 좀 더 널리 읽혀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1981년 2월 최 현

Prologue

“재판에 즈음하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감람나무 역사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중에는 사단의 눈을 피해 짐짓 가려놓은 부분이 적지 않으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나중 감람나무의 입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은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로 계속 발간되고 있으나, 주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여 이제야 재판이 나오게

되었다. 몇 군데 잔손질을 한 것은 이미 간행된 설교집 전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이다. 이 설교집의 재판을 위해 수고하신 윤상학 박사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최 현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사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레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눅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눅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눅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라고 하셨다.(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러들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책머리에 ... 06
재판을 즈음하여 ... 10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2

Part 01.

세기의 증언

- 01 천국의 이모저모 24
- 02 여호와의 도전자들(1) 42
- 03 여호와의 도전자들(2) 54

Part 02.

말씀의 감주를 입고

- 04 주님을 에워싼 군상 70
- 05 이것이 이긴자이다 93

Part 03.

새벽별이 빛날 때

- 06 기도에 대하여 124
- 07 하나님과 모세 134
- 08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142
- 09 주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150
- 10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155
- 11 말씀은 그대로 응해진다 160
- 12 자유 율법에 대하여 165
- 13 진리를 찾는 사람들 170
- 14 믿음과 의심 174
- 15 부활과 재생 179

Part 04.

우리도 이기리

- 16 정신 무장을 든든히 하라 184
- 17 우리의 할 일 189
- 18 신앙은 싸움이다 199
- 19 알곡과 쭉정이 204
- 20 방언은 은혜인가? 209
- 21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214
- 22 요나와 니르웨 성 219
- 23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225
- 24 오늘의 우상 숭배 232
- 25 심판에 대하여 236

Part 05.

예루살렘의 별

- 26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242
- 27 여호수아의 이적 248
- 28 수난과 대속 251
- 29 아볼로에 대하여 256
- 30 하늘의 뜻과 땅의 뜻 260
- 31 믿음은 뿌리가 든든히 박혀야 한다 266
- 32 영과 육 270
- 33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과 할례 274
- 34 신비로운 은혜 체험에 대하여 283
- 35 주님은 왜 안식일을 범했는가? 288
- 36 음부에 대하여 296
- 37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했는가? 302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Part 01.

세기의 증언



1. 천국의 이모저모 · 2. 여호와의 도전자들(1) · 3. 여호와의 도전자들(2)

Chapter 01.

천국의 이모저모



1) 셋째 하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귀가 소탕되어 죽음과 이별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백성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 사람들은 여러 모로 상상하게 됩니다. 나는 전에도 성경을 토대로 하여 내가 이상 중에 본 하늘나라에 대해 조금씩 터뜨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하늘나라의 모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

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고후12:2-4)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긴가민가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어엿한 주의 종임을 강조하기 위해 발설한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란 요컨대 현재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가리키며,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요, 둘째 하늘은 우주 밖에 있는 마귀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을 마귀의 세계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차지했다.”(엡2:2)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어느 쪽과도 접해 있으나, 하나님과 인간은 마귀의 세계에 의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마귀가 인간에게 역사하기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위는 실제로 그와 같은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실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에 대해 어떤 신학자도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중에도 하늘나라, 곧 3층천에 가려면 마귀의 세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님 또는 천사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우주는 광대무변하여 지상에서 제일 빠른 빛으로도 몇백 억 년이 걸리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만, 영은 순식간

에 우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약 이천 년 전에 갔다 온 셋째 하늘, 곧 하나님과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지금도 물론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고정된 불변의 세계가 아니라, 발전하고 성장할 수도 있는 세계입니다. 세세토록 영생하며 영화를 누리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 뿐, 구속된 백성들의 수에 따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수한 계층 – 즉 일정한 수로 된 통치자의 계층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피지배자의 계층으로 나뉘져 있으며, 치리자의 계층은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맨 위로부터 하나님, 주님, 이긴자,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의 왕들로 구분되며, 여기까지는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리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결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실개천이 졸졸 흐르는 그런 아담한 동산이 아니라, 광대무변하고 어마어마하게 호화찬란한 세계입니다.

바울은 심심해서 셋째 하늘에 유람을 간 것이 아니라, 중대한 용건이 있어서 갔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해 통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은 곧 할례 폐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강력히 전해야 하며, 바울의 말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

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 바울이 “내가 전하는 말을 천사가 변경해도 저주를 면치 못한다.”(갈1:8)고 자신 있게 말한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랫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돌이켜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의 초림을 비롯하여 지상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마귀가 유난히 극성을 떨게 마련입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10:18)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은, 바로 사단이 거하는 둘째 하늘입니다. 이 마귀는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훼방하기 위한 정예 부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70 문도를 사방에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이리 떼속에 보내는 느낌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눅10:3)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강력한 마귀의 도전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상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 안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도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짧은 역사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컨대 인간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다시 뺏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뺏느냐 뺏기느냐의 투쟁이 전개되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서는 대체로 이 마귀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대로 척척 이루시려니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적을 모르고 어찌 싸움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마귀와 싸우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의사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태어난 연후에 비로소 차츰 괴로움과 즐거움, 슬픔과 기쁨 등 여러 가지 느낌을 갖고, 싫든 좋든 세상에 적응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상 중에나마 그 나라에 가 보기 전에는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역대 주의 종들 중에는 이상 중에 그 나라에 가서 영계에 대해 실감을 느낀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세계를 직접 가 보았으며(계4:1) 바울은 3층천, 곧 천국에 가보았는데, 그때 하도 신기하여 무어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고후12:4)

굼벵이는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 살면서 갑갑증도 모르고 자기 세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 탈피를 하여 매미가 되면 공중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노래로 삶을 즐기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피 권세로 홀연히 변하여 천국 백성이 되면 상상조차 못한 호화찬란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땅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금을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듣고 그 짠맛을 이해하려는 것과 비

슷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설명도 이와 비슷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 있게 받아들이려면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6년 동안 이 역사에 동참하여 어느 정도 귀가 열린 것으로 알고, 내가 이상 중에 본 영의 세계의 일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21:1)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본 영의 세계에 대해 막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만 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새 하늘은 그 형태부터가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반짝이고 있으며, 따라서 그림자가 나타나지만, 새 하늘에는 그런 천체가 없고,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휩싸여 찬란한 광채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곧 새 하늘입니다.

그럼 ‘새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새 땅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매우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므로 발에 저항을 느끼지 않으며, 마치 물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인이 공중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광경을 연상해 보시면 짐작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국에는 14만 4천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와 나라 사이는 초음속기(超音速機)로 몇백 년 가도 닿을 수 없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 세계에서는 인간이 영체로 변

모되어 있으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양식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그 세계에서도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느낌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매우 예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뵈 수 없지만, 주의 아내가 되어 그 세계에 가면 하나님을 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14만 4천의 왕을 거느리고, 왕들은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막연한 곳이 아니라, 성령이 보장해 주는 분명한 실재(實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세계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등용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그 세계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천국의 통치기구(統治機構)

나는 앞에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그 치리자만 해도 여섯 계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무튼 천국은 그만큼

엄청난 세계입니다. 40억 인구가 한 세대를 거쳐 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나라가 각각 다채롭게 살림을 꾸려 가는데, 하물며 억조창생이 세세토록 영원히 사는 호화찬란한 그 나라의 규모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천국의 통치기구에 대해 역시 성경에 입각하여 내가 이상 중에 본 내용을 참고하면서 좀 더 상세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전능하신 만왕의 왕, 곧 최고의 통치자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만국이 와서 경배하게 됩니다.(계5:13, 15:4)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아담과 하와)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였을 뿐, 당신의 모습을 인간 앞에 노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모세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지만, 모세는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출33:23)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하여 육을 입은 인간이 보면 쓰러져 죽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출33:20)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하게 되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고전15:51-52, 계22:4) 그렇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수는 치리자의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아무나 대통령을 만나볼 수 없고, 고관들만 대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나라의 대주재로, 수하에 14만 4천의 왕들을 거느리고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게 되며,(왕상22:19 참조)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뵈 수 있는 치리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계22:3)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계4:3)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된 이 찬란한 빛으로 인하여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으며’(계22:5) 만국이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1:24) 이를테면 하나님이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시지만, 이 찬란한 빛은 태양처럼 직사광선을 발산하지 않으므로 그림자가 없으며, 밤이 없습니다.(계21:25) 그리고 하나님을 뵈 수 있는 치리자들의 형상도 하나님을 닮아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옷을 성경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계19:8)

하늘나라의 두 번째 지위는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존재로 계시다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린 후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시110:1) 그 피 권세로 하늘나라에서 치리할 왕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왕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계19:16)

이러한 주님의 존재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구약성경에 주님에 대한 말씀이 군데군데 삼입되어 있었지만, 그 주인공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신학자나 제사장들도 막

연히, ‘구세주가 언젠가 오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 필요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의 존재로서의 주님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었던 것입니다.(엡3:9, 골2:2) 그러므로 마귀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땅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알고, 다급한 나머지 하늘에서 땅 위로 번개같이 떨어져 내려왔습니다.(눅10:18) 만일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전략상 아들의 존재를 감춰놓지 않았던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난을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감히 도전하는 마귀이니 말입니다.(계12:10)

이러한 주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의 이름이 예수이며,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공식 명칭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입니다.(히7:11) 그러므로 그 모습은 초라한 시골 목수가 아니라, 머리는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계1:16 참조)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날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신으로 계시며, 따라서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듯, 성화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과는 판이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을 입어야 살 수 있지만, 그 세계는 육을 입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세계에 가려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신을 이룬다.”(고전6:17)는 말씀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땅에서 마귀를 발등상 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신 언약이었습니다.(사110:1) 그러므로 주께서 이긴자를 통하여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이 언약은 일단 끝납니다.

세 번째 보좌는 이긴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여기 ‘함께’란 말은 글자 그대로 한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우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긴자는 두 사람의 자연인을 가리키며,(속14:8, 계21:6 참조) 성경에 기록된 권능으로 보아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서 있는’ 두 감람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속4:14, 계11:4 참조)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주의 보좌에 앉는 이긴자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진,’(계14:14) 알곡을 거두는 마지막 마무리 짓는 종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이긴자는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 찬송하라.”(계19:5)고 외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긴자는 천년세계가 지나 마귀와 아마겟돈에서 일대 접전을 벌일 때 십자가의 군병을 이끌고 앞장서서 싸우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으며,(계11:7) 이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보필하여 만국을 다스립니다.(계2:26)

이 이긴자란 아무나 적당히 될 수는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이긴자를 데리고 하늘나라, 곧 바울이 말하는 3층천에 가서 하나님께 인사를 올리게 하고, 천사들에게도 소개를 하게 됩니다.(계3:5-6) 이 천사들이 곧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와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계14:17-18 참조) 그리고 인 치는 천사(계7:2)이며, 이들 천사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전 안팎을 살피고 성도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긴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공공연히, 혹은 은밀히 그 심령 상태에 대해 타이른 것을 보아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내가 신이 아닌데, 여러분의 움직임을 어떻게 것처럼 소상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당신의 역사에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생물은 하늘나라의 치리자 중에서 네 번째 서열에 속하며,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그룹들, 곧 천사장들을 가리킵니다.(계4:6) 요한은 이상 중에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이 눈은 물론 사방을 두루 살피는 영의 눈입니다.(계4:8) 하나님을 호위하고 섬기려면 이렇게 눈이 날카롭게 번뜩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의 모습은 강력한 피조물을 대표하여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계4:7)** 그것은 네 생물이 인류, 가축, 동물, 날짐승을 각각 대표하여 만물을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수시로 지시를 내리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기를 잊지 않습니다.**(계4:8)**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보필하며 그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네 생물 다음의 지위는 24장로로, 이들은 천국의 최고 간부라고 볼 수 있으며, 마치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처럼, 분야별로 천국을 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사24:23)**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좀 더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계4:4)** 여기서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24장로를 보여 주신 것은 다윗이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많아 편의상 24반차로 나누어**(대상24:7-19)**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여, 대제사장 아래 이들이 중책을 맡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은 흰 옷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이 24명의 장로는 이스라엘의 12족장과 예수의 12사도로 되어 있습니다.**(계21:12-14)**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고정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구약을 합친 12지파의 두령을 24장로로 표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구약 시대에 배출된 십자가의 군병들 중에서 각각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충성심이 특출한 자, 곧 영의 전쟁에서 싸운 십자가의 군병 중에서 최고의 공로자 24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 24장로는 하나님의 측근 참모로, 각자 그 아래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게 됩니다.(계5:11)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하늘나라에서 인간으로서는 이긴자 다음으로 영광된 지위에 오르게 되며, 천국에서 이긴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에게 각각 분깃을 나눠준 것처럼, 영적 가나안에서는 이긴자가 그 역할을 하며 이긴자는 주로 이들을 통솔합니다.

다음은 14만 4천의 왕들입니다.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을 되찾으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님의 초림이고, 다음은 이긴자의 출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 산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긴자가 나타나 14만 4천의 십자가의 군병을 채움으로써 하늘나라가 임하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상 중에 보여주신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계21:10) 즉 14만 4천이라는 의의 군병, 곧 어린 양의 아내의 수가 차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형성되어 하나님의 오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14만 4천은 하늘나라에서는 치리자로서 지위가 제일 낮지만, 각각 백성을 분깃으로 배정받아 다스리는 왕이 되며, 1번에서

14만 4천 번까지 정결하게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리하여 서열이 앞설수록 왕국의 판도가 넓고, 수하에 거느리는 백성의 수도 많게 됩니다. 이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하나님과 주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3) 그 나라의 생활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매우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육을 벗어난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시집 장가도 안 가고 밥도 먹지 않으며, 옷도 걸치지 않는다면, 그 세계는 너무 단조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영의 세계는 점점 알쏭달쏭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육을 입고 이 세상의 삶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계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영의 세계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80을 살면 장수했다고 하지만, 그 세계는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이 세상은 임금(대통령)이 다스리지만, 그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고 배설하면서 신진대사(新陳代謝)를 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신진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싸움이 그치지 않지만, 그 세계는 평화만이 지속됩니다. 이 세계는 어지럽고 괴롭고 쪼들리지만, 그 세계는 호화찬란하고 즐겁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세상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계도 감각과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불영광을 돌리면 노여워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도 하십니다. 예컨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십니다. 다만 그 세계에는 더 이상 마귀가 없으므로 이런 일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경에 따라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그 세계에서는 처우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그 세계에 가면 저마다 이루어진 정도대로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서열에 따라 각자 대우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천국에는 계급이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세계는 위로 하나님에서 아래로 천국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계층이 정결한 척도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입니다. 즉 죽음을 계기로 이 때부터 영원한 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도 느낌은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다만 산 자들이 볼 때 죽음이 비참할 뿐, 장본인은 영으로 화하여 그 존재를 계속 하므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누구나 좋은 느낌을 갖도록 이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세계의 일부를 보석으로 된 매우 찬란한 곳으로 묘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석을 매우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비유이며, 실제로 그 세계가 보화로 꾸며진 것은 아닙니다. 그 세계는 그 세계대로 가장 좋은 느낌을 주는 다른 것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그 세계에는 태양이 없으므로 시간관념도 이 세상과 다릅니다. 가령 심판대 앞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일일이 심판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것 역시 우리의 기준으로 시간을 따졌을 때에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그 세계에서는 금세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천년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년세계의 기간은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 요컨대 이 영의 세계에서 거룩한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시달림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ий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다.”(눅16:24)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죽은 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누구나 이처럼 두 갈래 길로 나뉘지게 마련입니다.

만일 영의 세계가 없다면 인생은 허망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겨우 나이 70이나 80에 죽으면 그만일 테니까요. 그러나 죽음이란

마치 굶餓이 매미로 탈바꿈을 하듯이 형태가 달라지는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으며, 생명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음을 계기로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가며, 따라서 ‘나’ 라는 의식(意識)은 존속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마22:32)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감각이 지상보다 몇백 배 예리합니다. 예컨대 그 세계에서 먹는 생명 과일의 맛은 여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나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옥에서 당하는 슬픔이나 고통도 매우 예리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상에서 느끼는 고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를 넘으면 까무러쳐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까무러치는 일이 없으며, 세세토록 고통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몇천 명만 모여도 누가 누군지 얼른 분간할 수 없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상대방을 곧 꿰뚫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각이 예리한 것입니다.

Chapter 02.

여호와와의 도전자들(1)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사업에 마귀는 이모저모로 교묘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간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교계에도 상당히 침투하여, 믿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잡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베풀어질 때에는 마귀가 더욱 극성을 떠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참고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도전한 마귀의 몇 가지 행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발람

발람은 박수, 술객과 같은 잡신을 입은 거짓 선지자였으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요긴하게 이용하시기도 했습니다.(민23:1-24:9) 그러

니까 좋게 말하면 작은 선지자와 비슷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내주지 않는 아모리 백성들을 칼로 무찌르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은 두려운 나머지 미디안 백성과 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사자에게 금은보화를 들려 거짓 예언자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만일 모압과 미디안이 힘을 합쳐 거짓 선지자의 대표 격인 발람을 앞장세워 대적하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곤경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당신의 편을 들게 했습니다.(민22:12) 하나님은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마귀의 앞잡이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본성을 드러내어 모압과 미디안 부녀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음행하게 하고, 바알 신을 섬기게 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민31:16) 하나님께서 이용할 때에만 교류하고, 일단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은혜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위기를 넘기고 발람이 쓸모없게 되자 던져버린 것입니다. 발람은 원래가 마귀의 앞잡이로 하나님을 대적해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하여 그들의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목매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수들에게 각자 휘하에

거느린 자들 중에서 바알을 섬기는 무리를 색출하여 즉시 목매어 죽이도록 지시했습니다.(민25:4-5) 그리하여 광야에는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떼죽음의 참화가 벌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모세와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해온 동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와의 명령이라, 눈물을 머금고 피의 숙청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린 명령을 어긴 죄과였습니다. 이런 난리를 거듭한 결과, 이스라엘의 60만 장정 중에서 목적이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두 명 밖에 없었습니다. 출발은 어마어마했으나 결과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결실이 없을 때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식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한 행음하게 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다.”(계2:14)고 경고했는데, 이런 상서롭지 못한 폐단은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 고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하나는 당을 짓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들의 명예욕에 호소하여 등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럴 듯한 구실과 이유를 내세워 자기

의 비행을 감싸온 것이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事例)를 우리는 모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고라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사촌간이며,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오만하고 명예욕이 강한 자였으므로, 마귀가 그 성격적인 결함을 틈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앞잡이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것을 자기 의사인 줄 알고 날뛰었습니다. 자기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라는 자기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영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불평을 일삼는 한편,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면 지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에 제일 큰 하나님의 종이며 율법의 선포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성에 있어서는 다윗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는 했으나 눈물이 병에 가득 찰 정도로 통회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권능은 대단했으나 영적인 깊이에 있어서는 다윗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혜나 인내심도 다윗만 못했으며, 통솔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도 하였습니다.(민11:11-12)

이처럼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모세였으므로, 고라와 같은 야심

가의 도전을 받을 만도 했습니다. 고라는 차츰 자기 세력을 확대하여 약 250명 정도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되자,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대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임을 고라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고라는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곤경에 처한 틈을 타서 이렇게 공박했습니다.

“당신네들은 도대체 자기 분수를 모르오. 하나님은 당신네 둘만 위하는 줄 아오? 우리네 백성들과도 동행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소. 그러므로 거룩하기로 말하면 우리도 당신네 못지않소. 그런데 어째서 당신네들은 스스로 우리 백성들 위에 서려고 하오?”(민16:3)

이것은 모세에게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고라와 그 일당에게, 내일 아침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우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당신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터이니, 이것으로 누가 하나님의 참된 종인가를 분간하자고 제의하고 나서, 고라와 그 일당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아론의 지위를 탐내느냐?”

모세가 말을 마치자 고라의 추종자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지도 못하고, 포도원 하나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무슨 주제에 우리의 왕(지

도자)이 되려고 하는 거요?”(민16:13)

모세는 화가 나서 여호와께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보시다시피 고라와 그 일당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저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새끼 한 마리 취한 적이 없고, 저들을 한 사람도 해친 일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앞으로 저들과는 상종하지 마옵소서!”(민16:15)

이튿날 고라와 그 일당이 불이 담긴 향로를 들고 나와 회막문(會幕門) 앞에서 향을 피우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나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무리들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니, 너희는 얼른 몸을 피하여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 엎드려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회중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원하옵건대 무고한 자들의 목숨은 해치지 말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일렀습니다.

“그럼 주동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외의 무리들은 장막에서 몸을 피하게 하여라!”

모세는 회중을 해산시키고 나서 고라와 그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워 일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서는 것이

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처참하게 죽을 터이니, 이것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말을 마치자,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가까운 일당을 모조리 삼켜 버렸습니다.(민16:31) 그 후부터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내노라 하고 잘 믿는 체 해도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죽이고 주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고라처럼 내가 뺏뺏이 살아 있는 것은 제일 금물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인간은 비슷합니다.

3) 바알

구약 시대에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풍습에 물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 이방인을 쓸어버리고, 당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를 이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섬기는 다른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란 ‘주’ 또는 ‘소유자’라는 뜻으로 자비와 파괴의 신이며, 그 노함을 풀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제물로 불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렘19:5)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학살하라고 지시했으나, 여호수아가 인정사정에 이끌려 그들의 일부를 살려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 살아남은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동안에 차츰 그들의 습성을 따르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그들의 신(바알)까지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제사법은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제사법과 유사한 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의 제단에 제물을 차려놓고 예사로 그 앞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와서는 왕 자신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왕상16:31) 하나님은 이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세운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긴 죄과로 말미암아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 것을 예언했으며, 바알 선지자들의 무능을 폭로하여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왕상18:40) 한편 아합 왕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처참한 죽음을 당하

게 되었습니다.(왕상22:40)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가서,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基業)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좇았느니라.”(렘2:7-8)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신(하나님)을 신 아닌 것과 바꾼”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바알 신을 제일 열심히 섬긴 것이 예레미야 시대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웃지 못할 진풍경은, 저들은 바알 신을 섬기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것이 큰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판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렘7:9-10)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에 바알 신을 모셔놓고 그 앞에 분향을 하면서도 구원을 얻는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태에 이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서 그런 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럴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렘 6:20)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는 아무 상관도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제일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시니, 선지자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금흙을 베풀어 줍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렘7:16)고 지시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중지시켰겠습니까! 이쯤 되면 가장 불행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 세대의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렘7:29)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매어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웬 놈이 무슨 잡꼬대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렘7:25-26)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청종치 않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고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선’이란 그 반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主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최대의 악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바알의 인침을 받은 자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지옥 불에 던져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신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마귀의 신에게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빛의 자식이 아니면 어둠의 자식이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무신론자이므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미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어둠의 자식’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놓여 있으며, **(눅4:5-7)**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은 신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마귀의 신을 물리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신’을 이루며, 이때 마귀는 범접하지 못하고 쫓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혼에 담길 때 이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인간을 불러 긍휼을 베풁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오면 그는 비로소 귀한 존재가 됩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격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 보배가 사라지면 그 질그릇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대신 도사리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事例)의 하나를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방 왕비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른 신을 좇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왕상11:10) 그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는 비극을 초래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Chapter 03.

여호와와의 도전자들(2)



1) 박수, 술객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마귀는 유사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싸워왔으며 현재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이 싸움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하여 아담, 하와를 죄에 떨어지게 한 후로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역사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맞선 구약 시대의 마귀의 무기는 주로 박수, 술객 등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왕)에게 갔을 때 이적을 보여 달라는 바로의 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더니, 바로는 즉

석에서 박수를 불러 동일한 술법으로 똑같이 흥내를 내게 했습니다.(출7:11)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강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여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하자 술객들도 똑같이 흥내를 내었으며,(출7:22)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애굽의 모든 강과 운하(運河)와 연못에 살고 있던 개구리가 모조리 육지에 올라와 애굽 땅을 온통 뒤덮게 했더니, 역시 술객들도 즉시 이런 기적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출8:7)

이것을 보더라도 구약 시대에 박수와 술객들이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지한 백성들이 여기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까지도 여기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의 대군이 자기 진지를 포위하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호소했으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반응이 없으므로, 다급한 나머지 용하다는 여자 술객을 찾아가 영문을 물었던 것입니다.(삼상 28:7-8) 그리하여 사울은 비로소 죽은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윗에게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술객을 불러 자기의 앞날을 알아본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이 한 가지 잘못으로도 사울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연회석상에서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아내기 위

해 술객을 불러 물어본 사례와는 다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임금이라 술객을 부른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박수와 술객을 내쫓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것입니다.(삼상28:3) 그런 사울이 다급해지자 자기가 내쫓은 술객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충신에서 역적으로 돌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180도로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같이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박수, 술객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악신을 받아 병을 고치고 앞날을 점치는 등 신비한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매혹시키지만, 점점 그 능력이 약화되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가불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 음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계17:1-2) 이 본문에 나오는 음녀에 대해서는 이미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는 마귀의

무기가 곧 음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자유의 율법을 선포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즉 새 율법은 구약 시대처럼 인간의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혼(정신)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된 것이 이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왕초인 용도 박수나 술객들을 내세워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던 구약 시대의 작전을 변경하여, 보다 강력한 음녀를 내세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은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고 으레 그 부하를 내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므로(엡2:2) 인간과 쉽사리 접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 마귀의 장막을 뚫고 인간과 연결되게 마련이므로 한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고 나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네게 주겠다.”(눅4:6)고 피일 때, 이 만국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귀에게 만국을 넘겨준 것은 물론 마귀의 왕초인 용입니다. 용은 하나님처럼 보좌에 앉아 그 부하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것입니다.(계13:4 참조) 그리고 만국을 용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마귀는 그 세계에서 서열이 용 다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에

서 각각 제2인자가 대결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대결에서 일단 상대방을 물리쳤으나, 그렇다고 아주 거꾸러뜨린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계14:3-4)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 계시록에 나오는 ‘물위에 앉은 큰 음녀’(계17:1)를 가리키며, 이 음녀는 인간을 음란죄에 빠뜨려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죄를 지은 사람은 주의 아내, 곧 하늘나라의 군병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침투력이 여간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귀를 이긴다는 말은 바로 이 음녀를 물리칠 수 있는 영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음녀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음녀를 무찌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귀가 꿈쩍 못하게 하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빛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4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억 분의 일인 40명만 의인(義人)이 있어도 지상을 주의 빛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 사람들을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렘5:1) 즉 하나님은 의(義)의 힘으로 마귀를 꺾는 것입니다. 이 의의 힘이 곧 빛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세력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지면 마귀에게는 이야말로 초비상(超非常)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음녀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인간에게 음란의 올가미를 씌워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을 음란죄에 빠뜨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하도록 한사코 가로막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정신을 아주 마비시켜 세상과 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몸은 교회문을 드나들어도 정신은 마귀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는 말씀 그대로, 겉보기에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결국 마귀의 자식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의 영을 부어넣는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이 곧 이긴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이긴자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언제나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이긴자에게 범접을 못하고, 대신 그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긴자의 역사는 마귀에게 최대의 비극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일단 이긴자를 내세워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도 늘 같이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이긴자와 함께 계십니다. 이긴자란 요컨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자’ (속4:14)로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그 열매를 주 앞에 거둬들이는 사명을 맡은 주의 종입니다.

3) 짐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마귀의 도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담, 하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하나님은 그 동안 꾸준히 당신의 군병을 양성해 왔으며, 마귀도 이 전쟁에 대비하여 자기 군졸을 길러 왔습니다. 짐승은 이 마지막 전쟁 때 긴요한 용의 강력한 부하입니다.(계13:14, 17:12-13 참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긴자를 내세워 큰 은총을 베푸는 것도 요컨대 이 마지막 전쟁에 나가 싸울 하늘 군병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짐승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단7:3)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계13:1) 전에도 말했지만, 이 짐승의

뿔은 권세를 가리키며, ‘참람된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숨은 계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긴자에게 주어진 흰 돌에 기록한 ‘새 이름’이 하나님의 숨은 경륜을 의미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마귀의 주요한 무기는 음녀이며, 이 음녀가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이 차츰 사라져 드디어 희미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거의 다 빛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군병 14만 4천이 차면, 이 음란 마귀는 물론 그 우두머리인 용까지도 무저갱 속에 던져 가둔 후, **(계20:1-3)**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무저갱에서 놓여난 마귀의 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20:10)**

이때 하나님의 군병을 지휘하는 사령관 격인 주의 두 증인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마귀가 바로 짐승입니다. **(계11:7)** 주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고 이 전쟁에는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한 때, 두 때, 반 때, 곧 1,260일 동안 의(義)의 세력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하나님의 군병만 제외하고, 창세 이후 죽은 자들이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 마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즉 하

늘에 오른 주께서 나타나 하나님의 군병을 이끌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는 것입니다.(계19:19-21) 이와 같은 싸움을 거쳐서 마귀를 완전히 소탕한 후에야 비로소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되 찾으려는 하나님의 오랜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긴자의 역사는 음란 마귀를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무찌르는데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밭의 피라곤나 할까요. 그런데도 이것 역시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 그대로 이긴자를 통하여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생수는 몇 해를 뒤도 썩지 않지만, 부정한 것이 닿으면 곧 썩어버리는 것도 그만큼 대항하는 세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정한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긴자는 부정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떨어진 것처럼, 한 사람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계11:7-8)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의 수가 차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의 일이며, 따라서 영의 세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늘 군병의 수가 차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결박하여 천 년 동안 무저갱에 잠고,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 년 후에 잠시 놓아주게 됩니다.(계20:1-3) 여기서 말하는 열쇠나 쇠사슬은 물론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말입니다. 마귀의 왕초까지 무저갱에 가둬놓았으므로 천 년 동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자유롭게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은 무저갱 속에 갇혀있는 데 그치며, 완전히 없애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을 열고 마귀를 끌어내어 전멸시켜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두 증인을 비롯한 의(義)의 세력이 한동안 꺾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짐승이 얼마나 강하게 도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니, 시체니 하는 말이 쓰인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일 뿐, 영의 세계에 죽음이나 시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놓인 장소가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말하면, 그곳은 일찍이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한 소돔과 애굽과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의 언덕입니다.(계11:8)

여러분, 시체가 어떻게 세 곳에 동시에 놓일 수 있습니까? 이것

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하면’이라는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징적인 표현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증인의 죽음은 하늘 군병의 세력이 한동안 파괴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요, 1,260일이요, 3일 반입니다. 이 날짜 역시 우리 네 달력의 그것과 다른 일정한 기간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시간 개념이 세상에 있을 수 없을뿐더러, 1,260일과 3일 반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내려와 두 증인을 일으키고, 하늘에 오른 주님도 다시 내려와 하늘 군병을 이끌고 마귀의 본격적인 소탕전을 벌이게 됩니다.(계 19:11-14)

이것은 주께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육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난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유감스럽게도 모세와 여호수아 때처럼 순조롭게 이어져 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때 하나님도 일단 기쁨을 부어 등용한 이상, 당신의 권위를 위해서도 당장 갈아치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버틸 때 골탕 먹는 것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4) 용

용은 마귀의 왕초로, 하나님의 만만치 않는 적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치리하는 것처럼, 용은 마귀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성도들의 기도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지상에서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의 제사나 주문(呪文)은 용에게 올라갑니다. 다른 점은 하늘나라가 빛의 세계인데, 마귀의 나라는 어둠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고…”(계12:3) 이 ‘머리’나 ‘뿔’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세를 의미하며, 용은 면류관을 일곱 개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에서 용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16:13-14)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마귀의 움직임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들은 일정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었지만, 계시록의 내

용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에는 여호와께서 큰 도전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펼쳐질 영의 세계에서는 마귀의 큰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큰 날의 전쟁’이 그 도전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최대의 적수가 도사리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도 불가불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즉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차원이 다르고, 감춰진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성도의 움직임이 달라지며 또 달라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이 나와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계16:14) 이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입니다.(계16:16)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전자로서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 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하나님의 최대 강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옛 조상 아담, 하와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뱀으로 인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뱀의 모습도 아담과 하와를 피어내기 전에는 지금과 달랐으며, 당시에 뱀은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변모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침투하여 이들이 죄 가운데 떨어진 후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이외에 마귀의 요소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현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을 쫓겨날

때 이미 그 모습이 그와 같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 인간은 이를테면 하나님과 마귀의 혼혈아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중간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마귀는 인간에 대해 각자의 지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마귀 중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할 자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을 중간에 두고 서로 자기편으로 이끌려고 하며, 또 이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됴됨이 그 어느 쪽에도 쏠릴 수 있는 이런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에게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 인간을 서로 자기편으로 이끌기 위한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의 중간에 끼어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편에 속해 있거나, 완전히 마귀의 편에 속해 있으면 마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건드려 봐야 소용이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자, 즉 의심을 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자는 마귀가 곧잘 덤벼듭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좋은 미끼를 던져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마귀가 제일 극성을 떠는 것은 밤 열두 시와 세 시 사이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잠든 상대방에게 직접 덤벼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잠결에 마귀의 침범을 받은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제일 강해지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치루기 위

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한데 모일 때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하나님도 물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느리는 영은 소수이고, 용이 부리는 영은 다수입니다. 즉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빼앗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 빼앗고 빼앗기는 치열한 싸움이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행히 무기는 하나님께서 월등 강합니다. 마귀가 찢찢때는 주의 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는 성령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용의 전무후무한 일대 결전입니다. 그러므로 줄개 마귀 하나도 당해내지 못하여 빌빌하는 자는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전쟁에 나가 싸울 하늘 군병을 엄선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전쟁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최고의 목적인 동시에 최대의 영광입니다. 이들 군병을 가리켜 ‘멜기세덱의 반열’이라고 합니다.

Part 02.

말씀의 감주를 입고



4. 주님을 에워싼 군상 · 5. 이것이 이긴자이다

Chapter 04.

주님을 에워싼 군상



1) 주님과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라는 뜻으로, 바리새인들은 한 종파를 이루어 율법을 빈틈없이 지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일종의 특권층을 형성했으며, 따라서 이들의 세도는 당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제일 괴롭힌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 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마23:37-39)

이 말씀은 주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도를 전할

때, 당시의 세대를 어떤 시선으로 보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자비하게만 보이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불의 앞에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칼날 같은 면도 있었습니다. 즉 가난하고 병든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웠으나, 당신에게 강하게 도전해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냉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당시에 교권(敎權)을 장악하고,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오신 메시아를 것처럼 푸대접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추호도 양보하지 않고, 추상같이 대하였습니다. 흔히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인간의 상정(常情)이지만 주님은 반대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자인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매섭게 들이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23:27) 목수의 아들인 새파란 시골 청년이 위세가 당당한 저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으니, 당시에는 오히려 무척 당돌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들에 대한 주님의 공격은 독설(毒舌)로 먼저 저주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마23:33-35)

이쯤 되고 보면 저들은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이 오히려 화근이었다고 하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들 때문에 이스라

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맨 앞에 인용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너희와는 재림할 때까지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선언인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주님을 그토록 괴롭히지 않았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근 이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세계를 유리방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저주가 떨어진 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는 예언은 40년도 못되어 로마의 침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당시에는 제자들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으나, 그것은 실로 무시무시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의 도를 전파하려면 마땅히 교권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에게 것처럼 가혹하게 대했을까요? 주님은 결국 자기가 저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목숨을 내맡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두려울 게 무엇이며, 주저할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주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제외하고는 저들 중에서 이렇다할만한 주의 종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갖은 학대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 대

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나라를 되찾았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겨우 300만, 그나마도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무력 충돌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잘못도 있지만, 주님의 저주가 그대로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열매 맺는 백성’에게 옮겨갔으나, **(마21:43)**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숙원인 나라를 되찾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는데 어찌하여 그 나라에는 피비린내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2) 주님과 니고데모

여러분은 주님과 니고데모가 중생(重生)에 대해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을 성경에서 읽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에 주님은 시골의 젊은 목수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였으므로 일반사람들의 눈에는 두 사람이 서로 어울려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유명한 이 선생님이 시골 목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

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 사이에는 목수와 학자라는 겉모습과는 달리,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희한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수를 밤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낮에 찾아갔다가 남들이 보면 위신이 깎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께서 “다시 나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인간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그만이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긴 주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옳은 질문입니다. 주께서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3:10-13)

여기서 ‘우리’란 주께서 하나님을 당신과 한데 묶어서 지칭한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하고 점잖게 책망하고 나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올라갈’이 아니라 ‘올라간’이라는 시칭(時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언제

나 하나님과 교류하여 하늘나라에 무상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육신은 비록 땅에 거하지만, 영은 수시로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가? 그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소경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땅의 것을 비유로 들어 이 하늘나라를 여러 차례 증거했으나,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말씀은 당시의 소식을 아울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는 말씀에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랍비’(선생)로만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주는 데 대한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즉 이 말씀 가운데는,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소. 내가 비록 시골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 신령한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당신은 알아차려야 할 게 아니오.” 하는 항의 아닌 항의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발설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 앞에서 하셨지만, 실은 전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작정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래서 아무도 전혀 믿어주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을 만한 언동(言動)의 밑받침에 의해 당신을 증거했습니다. 즉 많은 이적, 기사와 아무도 모르는 신령한 말씀을 앞세우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반응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키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사53:2) 시골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많은 이적과 기사로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으나,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 자는 12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즉 예수가 자기를 사실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 정도라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마디로 그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발길을 주춤했던 것입니다. 만일 누구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만 하면 목숨을 내걸고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설교집을 읽고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가 아무개라고 하는 것만은 얼른 수궁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날 것처럼

인기가 땅에 떨어진 감람나무를 구태여 다시 들먹이려고 하겠습니까? 나도 그러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 어떡합니까? 그것은 이영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주님과 유다

성령을 받고 공적(公的)인 생활에 접어들기 이전의 인간 예수는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시골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초인간적인 비범한 존재로 돋보여 누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조금도 뛰어나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사53:2-3)

그러기에 이웃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님의 육적인 동생들도 형님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간 지 얼마 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입에서 신령한 말이 쏟아져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지붕 밑에서 한술밥을 먹고살았으나, 보통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마루도 놓아주고, 껌짝도 짜주고는 얼마간의 삿을 받아 가난한 살림을 그럭저럭 꾸려 나갔던 것입니다. 낮에는 대패질이나 못질을 하기에 분주하고, 밤이면 당신

의 방에서 손수 짚 책상 위에 커다란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이 30이 가까워 죽을 날이 점점 임박해 오자, 주님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의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음이 한때의 수난에 지나지 않더라도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처형되는 장면을 생각하면 괴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엎드려 당신의 사명을 무난히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이 30이 되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손길을 통하여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희한한 말씀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은 구름같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한 마디에 걸려 이들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유일한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신임이 두터워, 이를테면 경리를 담당하는 측근이었으나, 주님을 은 30냥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가 돈이 아쉬워 이런 짓을 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유다는 주님을 팔았을까요?

주님은 열두 제자들과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각처를 돌아다

니면서 하늘의 새 복음을 전해야 했으므로,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였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였던들 주님의 주위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모여들어 이런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을 테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전도 비용을 손수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하였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얻은 돈을 일단 유다의 손을 거쳐 지출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누구누구에게서 얼마가 들어왔다는 돈줄의 내막을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님에게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기생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자연스럽게 막달라 마리아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상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생에게서 돈을 타 쓰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이 유다가 주님과 원수가 된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주님을 육적으로만 생각하다가 끝내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조용히 불러서 잘 타일러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를 예언서의 악역으로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주님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임하고 돈주머니까지 맡긴 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배반하여도

유다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님을 기어이 팔아넘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만저만한 배은망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유다를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공적으로 일하실 때와 사적으로 움직이실 때가 달랐으며, 또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주님은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체모를 위해 되도록 모세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사사로이 행동하실 때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유 율법의 주인공으로, 모세도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요10:8) 그러나 이런 이치를 모르는 대중 앞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체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세를 낸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가는 데 세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필요한 말썽을 일으키기 싫어 성전세를 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므로 생활 자체도 이중성(二重性)을 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님의 이런 이중성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가롯 유다는 그 대표적인 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주님과 무화과나무

오늘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천 년 동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입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믿기 쉽지만, 주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수 노릇을 하면서 겨우 살아가던 시골 청년이 불쑥 나타나 몇 가지 이적과 기사를 한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언동을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까지도 긴가민가하게 생각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주님의 언동을 예로 들어, 하늘과 땅 사이의 움직임을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막11:12-14)

주님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돌아다닐 당시는 오늘날과 달라서, 매식하기가 간편치 못해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였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 몹시 시장하여 무화과나무의 열매로 요기를 하시려고 두루 살펴보았으나, 아직 계절이 일러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무의 탓이 아니며, 나무에게 잘못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만, 주님은

하도 시장하여 은근히 화가 난 김에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했습니다.

이 저주는 주께서 무심코 던진 것이며, 무모하고 천진스럽기까지 한 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저주는 나무가 나무 구실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튿날 베드로가 보니 그 무화과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들어 쓰시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들이므로 그 말에 응분의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신도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저주가 다만 저주에 그치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주님은 체통이 서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도 손상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사 나무라 할지라도 저주를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기독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저주하여 그것이 응해지게 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무는 주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죽었습니다. 이런 억울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나무에게 입이 있다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대뜸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항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는 인간의 이치로 따질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초인간적(超人間的)인 절대성(絕對性)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롬9:18)는 바울의 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강박케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런 항의를 예상했던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없느냐?”(롬9:21)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최대의 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악입니다. 성령을 훼방한 죄가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도덕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빌립이 주님에게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일체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초라한 시골 청년이 거침없이 던지는 이런 말들이 당돌하고 무엄하게 들리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율법을 예사로 범하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

는 다 절도요 강도”(요10:8)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가 혹시 잘못 걸린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율법주의자들이었으므로 그럴 만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의 아들이라는 것을 100% 믿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주님과 삭개오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가 복음서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것은 주께서 기억하여 자주 입에 올렸기 때문이며,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복된 사람입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돈 많은 세리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으로, 백성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무서원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 당시에는 기생만큼이나 천하게 여겼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꾼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 방면에 얼마나 유능하면 세리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주님은 사람들로 겹겹이 에워싸여 있었으므로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도저히 주님을 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뿔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별로 치하할 것도 못됩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열성을 주님은 가상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비결의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억을 받으려면 반드시 큰 공로를 세워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헌금한 동전 한 닢을 귀히 보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뿔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고, 그 날 밤에 그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중심을 꿰어 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바라보기조차 어려운 분이 자기 집에서 묵어가겠다고, 그보다 더 반가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천한 세리장 삭개오를 대하는 태도는 유대의 관원 니고데모를 대하는 태도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니고데모는 똑같이 주님을 존경했으나, 전자는 체면 불구하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뿔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주님을 톡톡히 보려고 했으며, 후자는 위신 때문에 밤에 남의 눈을 피해 주님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숙소에 찾아오고,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즉 이렇게 대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께서 천한 죄인(세리)의 집을 찾아간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날 밤 자기 집에 오신 주님에게,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즉 주님에게 그만한 재산을 헌금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을 인

정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언제나 약하고 천한 자를 불러서 강하고 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강자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권을 쥐고 성경에 밝아 은연중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정작 그 주님이 나타나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정다감(多情多感)한 주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라.”(눅19:43-44)고 저주했습니다. 주님의 이 저주스러운 예언은 주 후 70년이 지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화려한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혀 쑥밭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자기 겹옷을 벗어 나귀 새끼 등에 엮고, 그 위에 예수를 태우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눅19:38) 하고 소리소리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부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충고했습니다. “선생님, 저 제자들의 주책을 좀 책망 하셔야겠습니다.”

이들 바리새인은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싹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대답했습니다. “참견 말아라.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입을 열어 대신 소리 지를 것이다.”(눅19:40)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을 기특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믿음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적극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 가나안 여인은 귀신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개로 비유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극성스럽게 애걸하여 소원을 풀었던 것입니다. **(마15:27)**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여간한 열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데서 자라게 됩니다. 아니,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일에도 정성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일도 소홀히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서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신앙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에 띄이지 않는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제2, 제3의 삭개오가 계속해서 많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6) 주님과 세례 요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크게 양분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이 물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신구약 두 시대의 과

도기에 종으로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에 큰 몫을 담당하였지만, 그는 유감스럽게도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예수가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놓고도 육적인 문제로 의심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전해 듣고 예수를 의심하고, 제자들을 주님에게 보내어 그 정체를 재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얼빠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인물인 주의 길 예비자로서 있을 수 없는 큰 실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의 세계는 그만큼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옥에 갇힌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에 대해 여러 가지 언짢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마11:19) 운운하는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보다 언제나 육적인 것이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여기 ‘죄인의 친구’란 예컨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천한 여자나 세리를 가까이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열두 제자를 거느리고 사방을 전전하면서 하늘의 도를 전하였으므로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때로는 제자들을 보내어 돈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주님을 외면하였으므로, 주님은 제일 천시를 받는 세리나 심지어 기생들과도 어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가까이한 것은 물론 죄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였지만, 이들에게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나 기생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과 거리낌 없이 상종하니 평이 나쁘게 나돌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야, 이것 봐라! 그리스도가 이럴 수가 있나? 당신을 증거하다가 옥살이를 하는 나를 빼낼 생각은 하지 않고 천한 사람들을 가까이하면서 돈을 우려내다니, 내가 혹시 잘못 증거한 게 아닌가?” 이리하여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마11:3) 하고 질문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표현은 점잖지만, 까놓고 보면 “당신이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반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기가 막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여라.”(마11:4-5) 주님은 주로 육적인 이적과 기사의 내용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일렀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깊은 말씀을 전해도 세례 요한에게 먹혀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들에게 매우 불명예스러운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이나 고친다고 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서는 상대방의 심령이 어려 그 이상의 말씀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통고를 받았으므로 비로소 예수가 당신이 증거해야 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마3:17)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세례 요한만은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며, 또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즉 알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는데, 의심은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했으니, 이것은 세례 요한의 큰 불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쇠해도 그는 흥해야 한다.”(요3:30)고까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린 그가 제자를 주님에게 보내어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우문(愚問) 중의 우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을 훼방한 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도 이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마11:11)고 말씀했으며, 이 말씀이 떨어지자 세례 요한의 목은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당신을 의심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 후로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인물인 세례 요한이 자기를 배반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마16:15)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피차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 중에 주님을 은 30년에 팔아넘기는 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실족하는 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긴자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도 이를 의심한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전철을 밟는 것이 됩니다. 물론 떨어지는 당사자에게는 자기를 정당화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육적인 것일 때, 엄밀히 말해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로 의심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령 앞선 역사처럼 은혜가 희미해졌다거나, 생수의 능력이 약해졌다거나 하면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가 될 수 없습

니다. 만일 내가 입김을 불어 만든 생수로 시체가 변화되지 않는
다든지, 내가 안찰하였는데 마귀가 물러가지 않는다든지, 내 말이
성경에 어긋난다든지 하여 나를 의심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변동이 없는데도 의심한다면 이
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을 훼방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가 마귀의 편에 서 있다면 나를 통하여 신령한 것이 나갈 수 없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Chapter 05.

이것이 이긴자이다



1) 이긴자의 증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묘한 데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얼른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더디 깨우치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잘 알고, 못 배운 사람이 잘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은 머리를 싸매고 꾸준히 연구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컨대 성경을 깊이 아는 지식은 하늘에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기록된 이긴자에 대하여 근 이천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학자와 교역자들이 읽었으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도 별로 이상한 일이 못됩니다. 육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나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긴자가 나타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것도 주님 당시와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후에는 치리의 방법이 판이하게 된 것처럼, 주께서 당신의 피 권세로 이긴자를 세우신 후에는 섭리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즉 이긴자를 통하여 큰 은총을 베풀어 알곡을 거두는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이를테면 이긴자는 주님의 전권대사로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야만 세 증거(불, 이슬, 생수)의 은총을 힘입어 십자가의 균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호14:7 참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했으나, 주님이 오신 후에는 주님을 도외시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신도들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했으나, 이긴자가 나타난 연후에는 그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므로 그 섭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계11:3-4 참조) 그렇지 않으면 이긴자, 곧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이할 뿐, 결코 나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자는 주님 및 세례 요한과 함께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며, 결코 선지자나 사도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이나

설교가 선지자나 사도를 능가해야 합니다. 즉 그는 성령을 힘입어 큰 권능을 행하고, 주께서 못 다하신 말씀을 터뜨려야 합니다.(계 2:17 참조)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이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긴자가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서신이나 풀이해서 전한다면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긴자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령의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긴자의 속성과 사명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학자나 성경 주석자들 사이에도 이 이긴자에 대한 견해가 구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긴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믿음을 다져야 할 교역자나 신도들도 말씀에 올바르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긴자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긴자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그 특성은 두 가지로 요약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쥐고 큰 은혜와 새로운 말씀을 쏟아내는 것이며,(계2:17) 또 하나는 역시 말씀 그대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계21:6-7) 그러므로 누구라도 성경에 예언된 존재인 이긴자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긴자란 주의 피로 온전히 씻음을 받아 못 사람에게 값없이 큰 은총과 새로운 말씀과 생수를 실제로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슬 같은 은혜나(호 14:5)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마지막 이루어질 일을 밝히는 새로운

말씀을 터뜨리고, 생수로 뺏뺏이 굳은 죽은 자의 시체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안찰하여 성령을 부어주고, 신령이 맑아지고, 향취를 맡는 등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로 병이나 고치고 약간의 이적이나 곁들인다고 해서 이긴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해왔으며, 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은총들은 이긴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즉 그것은 주께서 이긴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육에 매여 영의 역사를 소홀히 알기 쉽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를 알고 따르는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함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슥13:8-9) 이 말씀은 우리의 역사에 그대로 해당됩니다.

2) 이긴자의 직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은 알기 어렵기도 하고 알기 쉽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알기 어렵고, 성령을 받으면 알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설교하실 때

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극히 적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답답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큰 권능을 행한 고을 사람들일수록 주님을 우습게 여겨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컨대 가버나움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께서 화가 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마11:23) 하고 꾸짖을 만도 합니다. 저들은 주께서 아무리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습니다. 특히 지식층이나 세도가로서 내로라하는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하도 기가 차서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마11:25)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 물론 인간의 그것이며, ‘어린이’는 순진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좀 안답시고 교만하거나 세도깨나 부리는 자들은 진리에 어둡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혼은 있어도 주의 영이 깃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리를 알려면 주의 영을 받아 눈과 귀와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더라도 몰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은

밥 한 끼 먹여주는 이웃사촌만도 못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이 되어 버립니다.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것처럼 환영을 받지 못했으니,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푸 대접을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긴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긴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밖에도 이긴자에 대해 여러 가지 기록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계시록 강해에 대충 설명했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긴자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둥은 이긴자가 해야 할 직분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긴자가 주의 피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긴자는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언제나 기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자에게 기록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고, 셋째는 주의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니까? 여호와입니다.

주님의 이름은요? 예수입니다. 그럼 이긴자에게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을 기록한다는 뜻일까요? 이것 역시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감춰진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께서 앞으로 펼칠 새 역사(役事)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이 양자, 즉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상세한 내용을 환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자유의 예루살렘’(갈4:26)이요, 어린 양의 아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계21:10)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창조하시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며, 주의 재림에 반드시 필요한 여건이 되는 일정한 수의 주의 아내, 곧 하늘 군병의 명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말씀의 깊은 내용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물론,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생명책에 녹명된 의로운 성도와 당대에 땅에서 구속되어 기록된 성도의 명단을 알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나 사도들은 자기 시대에 해당되는 하늘의 새 소식을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긴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움직임에 대한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다 알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입을 통

하여 새로운 말씀이 터져 나가고, 그의 손길이나 입김을 거쳐서 희한한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의 지시에 따라 ‘할례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큰 고역을 치렀습니다. “네가 뭘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당연한 항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덮어놓고 항의부터 하기 전에, 우선 바울에 대해 그 권능이나 영력, 그리고 말의 깊이를 세밀히 검토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속단(速斷)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층천에 간 이야기를 14년이 지나, 자기의 기반이 잡힌 후에 비로소 발설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도 어리고, 또 모인 인원수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단계의 말씀을 마음대로 터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 자신부터 좀 더 말씀으로 다듬어져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3) 천사와 이긴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태어나 예수라는 ‘예’자(字)도 모르다가 앞선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아 그 안에서 신앙의 잔뼈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지지가 없다면 어디다 대고 감히 그 역사를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역사는 불원에 궤도에 올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최고로 깊고 오묘한 역사, 아무리 강한 마귀의 세력도 무찌르는 역사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의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가 열려 내 설교를 듣거나, 눈이 뜨여 내 설교집을 읽는 사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설교집을 보시면 은혜가 연결되어 그 말씀에 감동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때 인간 이영수는 사라지고, 주님과 독자와의 교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앞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입술과 이 손길을 통하여 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테스트(시험)가 끝나 사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환한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언제든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받고 하여 사실 여부를 즉석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이 달나라를 내왕하는 우주 시대이며, 인지가 발달될 대로 발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순 재주로 지금까지 6년 동안 줄곧 새로운 말씀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까?

주께서 일찍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약 2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신 것이 만민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처럼, 나

는 이 단상에서 오늘날 전 세계 40억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 귀를 기울일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이 단상에서 하는 말은 결코 이영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갈1:12)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애굽 땅으로 팔려갔으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같이하셨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와서 굶질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요셉은 저들을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 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미처 모르고 멋대로 떠들던 자들도 조만간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마음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계7:1-3)

본문에 나오는 네 천사는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동쪽 해 돋는 데서 올라온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지구를 해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는 말씀은 하늘 군병으로 인정받는 일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계7:4) 인 치는 천사가 하늘 군대의 수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며, 그 수를 채울 때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에게 지구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완전히 편성되어야 비로소 네 천사가 지구를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천사가 움직이지 않는 한, 지구는 영원히 태양의 주위를 돌아가게 마련이며,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엄밀한 의미에서 말세는 아닌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성경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선민들로 구성된 이 일곱 교회 안에서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늘 군대의 수는 이긴자가 땅에서 채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계3:12, 14:16 참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께서 원하시는 이긴자는 이 일곱 교회 중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주님은 당대에 재림하실 수 없

게 되었습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해 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와 힘을 합쳐 하늘 군대를 급속도로 배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자(兩者)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즉 해 돋는데서 올라온 인 치는 천사는 이긴자에게 인 치는 여진, 다시 말해서 하늘 군대가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긴자는 하늘 군대를 배출시켜 천사에게 인을 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 맞은 자의 수는 이 천사가 제일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당연히 이긴자에게 알려지게 되어있습니다. 이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복수(複數)로 표시 한 것은 이처럼 이긴자와 긴밀한 협작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인을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하늘 군대 14만 4천이 차게 되면 이긴자는 본문에 나오는 네 천사에게 통고하며, 이때 네 천사는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을 일으켜 지구를 송두리째 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세계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환란이며, 계시록은 이때의 시작을 가리켜 “여섯째 인을 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계6:12-17 참조)

네 천사가 일으키는 환란은, 바꿔 말하면, 마귀에 대한 대대적인 도전입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이라는 하늘 군대의 편성을 마쳤을 때 비로소 네 천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왕초가 아니라 그 부하입니다.(눅4:6 참조) 그러므로 그 왕초인 용까지 능히 소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병력이 찾을 때 크게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마귀에 대한 본격적인 소탕전인 아마겟돈 전쟁 이전의 일입니다.

그럼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늘 군대가 전혀 생겨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 치는 천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속에서 하늘 군대의 자격자를 찾아내어 인을 칩니다. 요컨대 순교자들이 이에 속합니다.(계20:4) 이 작업은 인 치는 천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천 년 가까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사람들이 성경에만 의존하여 겨우 불의 성령이나 받고 하나님을 공경할 뿐, 하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신앙을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간섭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지시가 전혀 없이 어떻게 그 영광의 반열에 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몇 명, 독일에서 몇 명..., 이리하여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무수히 많지만, 인 맞은 자는 얼마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긴자가 나타나면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늘에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단시일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을 칠 수 있도록 재료(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천국 인을 치는 큰 역사를 일으킬 이긴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타나기를 원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21:44)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에 이스라엘과 같은 특혜(特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자의 특혜를 받는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는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휘도록 천사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후자는 이긴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인 치는 천사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인 칠 사람을 찾던 번거로운 일을 중단하고, 이긴자와 행동을 같이하면서 인 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일곱 눈이 박힌 ‘한 돌’(속3:9)의 역할을 ‘이기는 자가 받는 흰 돌’(계2:17)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수보하는 종으로서의 이긴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修補)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58:12) 하나님의 역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은 이를 교묘히 물리치고, 결국은 당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갑니다.

설사 한동안 형세가 불리한 듯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컨대 여호수아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 바울의 시대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큰 경륜을 펴나갈 때에는 으레 이들 수보하는 종을 대비해 두었다가 그를 내 세워 기어코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의 앞선 종 모 세나, 사울, 그리고 베드로는 저마다 혼자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웠던 것입니다.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다윗과 바울을 수보자로 삼아 그 뒷수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긴자의 시대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이 역사가 수보자에 의해 마무리지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섭리 안에 동참한 여러분이 그 동안 수많은 신앙 체험으로 익히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이긴자는 두 감람나무를 가리키며, 계시록에 이긴자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 증인’이 세대교체를 하여 각자의 시대에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 역사도 영적인 씨를 뿌리고 그 수확하는 역할과 사명은 각각 달라도, 하늘의 계획은 빈틈없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하며, 또 하늘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권능과 은혜와 말씀에서 다른 어느 시대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혜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어느 종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이긴자만큼 종합적으로 상세히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다만 단편적으로 지시를 받고 역사하는데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대결에서 작전상 그만큼 당신의 섭리를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막연히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다가 숨을 거두면 그 품에 안기려니 생각하고 있었을 뿐, 자기가 가는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대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걸쳐 감추어둔 여러 군데 빈 공간을 채워 말씀에 튼튼히 서게 하고,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무후무한 성령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은총을 입었다가 쏟은 후에 7배나 악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마12:45 참조)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비참한 처지에 이른 자들을 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이 은혜를 주신 9만 명 중에 은혜에서 떨어져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이 수두룩하니, 이들을 건져서 하나님 편에 세우고 이 역사를 마무리 지으라는 지시를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긴자란 보혈의 권세로 온전히 죄의 씻음을 받아, 마귀가 다시는 범접을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으로 지켜주는 주의 종으로, 은혜를 못 성도들에게 물 붓듯 부어 주어 하늘 군병의 일정한 수를 채워야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되지 않으면 그는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긴자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은혜가 끊기

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긴자가 여느 성도들처럼 못 갈 데 가서 씩운다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고 빌빌거린다면 죄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긴자가 이처럼 허약하다면 우선 하나님 부터가 불안하여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긴자를 광물로 비유하면 금강석과 같습니다. 쇠붙이는 연탄가스에 녹이 슬지만, 금강석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인간 금강석을 쇠붙이처럼 녹스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긴자는 언제나 이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감당케 하려면 그만한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예언자라면, 사도 요한은 이긴자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그 주인공보다 크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픈 게임이 본 게임보다 보잘것없고, 예고편이 본편보다 재미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거의가 아직 이긴자에 대해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가슴으로 절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마13:17)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실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거의가 그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이상 중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꾸준히 달리는가 하면, 어떤 분은 파

도처럼 믿음에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하여 6개월 전에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새 뒤로 처지고, 뒤로 처진 사람이 얼마 후에는 앞장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이긴자의 역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믿음을 잃은 자들을 수보해 세울 것을 나중 이긴자에게 당부하신 것은 당신이 베푸 특별한 은총이 헛되이 짓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가 마귀에게 크게 손상되었을 경우에 쓸어버리고 새 역사를 베푸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 시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모세를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워 그 후 손들을 선민으로 삼아 역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출32:10 참조)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시키려고 인도해 내었다고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출32:12)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여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역사를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시다. 내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려야 한다고 외친 이유가 여기 있었습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헛수고에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너를 따르는 내 백성들이 기뻐하다.”는 말씀이 내려오면 우리의 역사는 저절로 발전할 것이고,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왜 그 꼴이냐?” 하고 책망이 내려오면 우리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가로막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에텐호’라는 한 배에 탄 믿음의 형제로서 피차에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약한 자가 있으면 붙들어 주고, 미처 모르는 자가 있으면 일깨워 주며, 주저앉은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우면서, 내가 아니면 이 역사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심정으로 각자 자기 위치와 부서에서 주의 일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남의 심령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인도해 들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믿음 안에서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불붙어 뜨겁게 달아오르려면 이 역사를 똑바로 아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이 역사가 무슨 역사인가에 대해서는 성령이 오랫동안 이모저모로 보여 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래도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긴자를 아십니까? 아마 그 동안 받은 은혜로 대충 짐작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알기는 아는데 아직 가슴이 뜨겁지 못하고 손발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행위로 옮겨질 때 비로소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긴자를 알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모든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그 은혜를 믿음의 양식으로 삼고 묵묵히 따르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5) 예언된 종으로서의 이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6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역사해 오시는 가운데, 주님 이외에도 예언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된 인물은 하나님께서 내정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계3:12) 이 예언된 인물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선지자나 주님 당시의 사도와도 다르며, 미리 성경에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이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 움직여야 하며, 그의 행동반경은 일정한 테두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성경에 비추어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권능과 은혜와 말씀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과 부합되면, 그는 그 장본인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된 인물로서 그 권능이나 사명으로 보아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긴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긴자의 출현에 대해 예의 주시해야 합

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찍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으나, 오늘날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성도는 “이긴자가 언제 어디에 나타날 것인가?”가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긴자는 놀랍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그 증인이 되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긴자는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피 권세로 세워서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의 충실한 하수인(下手人)이 되어 그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이 계약을 맺고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이들 동업자는 그 계약을 지켜야 하며, 결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뚜렷이 밝힌 언약은 당신의 권위를 위해서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예언된 인물이 나타나 역사할 때, 하나님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언된 인물도 인간이며, 설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더라도 한편 그만큼 마귀의 도전도 극심하므로 모처럼 내세운 그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긴자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큰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자란 일정한 하늘 군병의 수를 채워 주께서 재림할 여건을 마련하라고 세운 하나님의 마지막 큰 종입니다.(계6:11, 20:4 참조) 다시 말해서 이긴자, 곧 ‘온 세상의 주를 모신’ 감람나무는 재림주의 길 예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느 부흥사나 목사, 아니 사도들과도 다릅니다.

다른 이들은 마땅치 않으면 판 사람으로 대치할 수 있지만 이긴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않는다.”(계3:12)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긴자는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장이 없이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늘에서 먼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잘하든 못하든 예언된 인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영수가 단을 지키든 말든, 이긴자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긴자 시대는 한 번뿐이며, 이 세대가 지나면 다시는 이긴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속14:7-8 참조)

천지가 없어져도 성경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6년 동안 이 역사에 동참하여 보고 듣고 받은 것이 많지만, 아직도 그런가보다 하고 따라올 뿐, 감람나무가 무엇이며, 이긴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분이 몇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영수가 어찌 탄탄대로를 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영수를 통하여 불과 이슬과 생수의 성령을 받고, 향취를 맡고, 신령한 이상을 보고, 오묘한 말씀을 듣는 등, 이것이 무슨 역사라는 것을 알고도 남을 정도로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긴자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이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까지도 아직 이긴자에 대해 은혜가 많은 부흥사나 목사 정도로 알고 계시다면 이긴자가 이긴자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이긴자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긴자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루 세 끼 밥 먹고사는 인간입니다. 자연인 이영수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나 하나를 꺾으려고 혈안이 되어 백방으로 괴롭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긴자가 쉽사리 꺾인다면 일반 목사나 부흥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긴자에게 아무리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해야 그것은 이긴자와는 무관합니다. 왜? 이긴자는 자기 사명을 잘 수행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차이는 있어도 죄와는 상관없이 때문입니다.(눅13:1, 계21:6-7 참조) 만일 죄를 짓는다면 그는 이긴자가 아닙니다. 이긴자는 하늘에서 마귀가 침범 못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그만한 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빈주먹으로 시작한 이 역사는 벌써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긴자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특징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몰래 취했을 때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진노했던 것입니다.(수7:1) 육적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이렇거늘, 하물며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여러분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주시하는 이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움직이면 하늘에서는 구하지 않아도 더욱 큰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 주의 역사를 위해 어떻게 힘쓰며,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면류관과 바꿀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하고 찬송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한다면 그 장본인은 물론, 우리 역사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많이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긴자를 만난 보람이 없게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여러분이 각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충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출랑거리지 않고 잠잠합니다. 사랑이 메말랐을 때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이긴자의 손길을 통하여 남들이 그토록 애써도 받지 못하는 성령을 값없이 받고도 만날 그 타령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하겠

습니다. 받는 은혜가 클수록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6) 사도 시대와 이긴자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신약 시대는 다시 사도 시대와 이긴자 시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영적인 은혜가 미약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평신도는 물론 선지자까지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즉 길ियो, 진리요, 생명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나 이사야와 같은 큰 종들도 지성소에 가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주께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고 운명하고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일어나 거룩한 성, 곧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마27:53) 그러기에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14:6)고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10:8)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신령한 구절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영적인 말씀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증거도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증거는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현세가 아니라, 영원히 생존하는 내세를 위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원하는 그 영의 세계가 없다면 기독교는 그 진가(眞價)를 상실할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성령의 보증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세계보다도 죽은 후에 몸담을 그 세계가 더욱 소중합니다. 나는 성경을 상고하면서, 내가 이상 중에 본 그 세계에 대해 여러분에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그 피 권세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지성소에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도 인간의 영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언제든지 인간의 영을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태여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삼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들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불명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동안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적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것은 이 적을 물리치기 위한 획기적인 작전의 일환이요, 하나의 비상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귀한 존재로 계시던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심한 곤욕을 당하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이들 사도들은 십자가에서 무참히 처형된 주님이 그토록 중한 죄인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였다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여 기독교의 기틀을 세웠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 시대의 대표적인 주의 종이며, 또한 신학자인 바울에 의해 기독교 교리가 수립되고,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시대는 비단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말하면 근 이천 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주님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세계 각처에 걸쳐 역사해 왔으며, 성도들은 믿음이 돈독하여 순교하면 하늘나라에서 왕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계20:4-6)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언한 이긴자의 시대가 되면 양상이 달라 집니다. 즉 사도 시대는 한 증거(불)의 성령으로 역사했으나, 이긴자 시대에는 세 증거(불, 이슬, 생수)의 성령으로 역사하며, 그만큼 은혜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감춰진 비밀의 말씀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즉 그를 따르는 수가 적든 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못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일관하여 하나님께서 줄곧 움직여 왔지만, 시대에 따라 독특한 섭리가 베풀어

졌습니다. 예전대 모세 시대와 바울 시대에 각각 특이한 하나님의 섭리가 베풀어졌으며, 오늘날 이긴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통된 점이 있다면, 어느 시대나 그 섭리의 주인공들의 길은 순탄치 못하여 풍파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태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요전대 적(마귀)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이긴자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기틀을 마련하는 중대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긴자에게 큰 권능을 부여하여 단시일에 의로운 하늘나라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일정한 수를 채우게 함으로써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끝내는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역사가 어떤 지역에 걸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베풀어지는가는 하늘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찬송가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여,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신령한 주의 귀한 형상을 닮게 되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 나라는 육을 입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요6:63)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날에 홀연히 변하여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15:53)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령한 몸도 일정한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상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의 형상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알맞고, 영의 형상은 그 세계에서

살기에 적합합니다. 그것이 곧 부활하신 주의 귀한 형상입니다. 잠시 왔다 사라질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형상과 세세토록 살아갈 그 세계에 사는 인간의 형상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세계에서 살려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형상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탈바꿈을 ‘거듭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흠으로 빚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으나, 죄에 빠져 그 형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즉 영의 형상에서 육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다시 본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회복’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 회복을 위해 장장 육천 년 동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단번에 재깍 해치우지 않고 육천 년 동안이나 끌고 계실까요? 해치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치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이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줄만 알았다가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의 세계는 둘로 크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이 두 세계에서 인간의 형상은 죄를 벗어버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죄에서 벗어나 신령하게 이루어질수록 주의 형상을 닮고, 죄를 많이 질수록 마귀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서 벗어나 주의 형상을 닮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긴자를 통하여 베푸시는 새로운 섭리 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와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를 아무 데서나 적당히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긴자의 시대입니다. 나는 우리의 역사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Part 03.

새벽별이 빛날 때



6. 기도에 대하여 · 7. 하나님과 모세 · 8.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 9.
주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 10.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 11. 말씀은 그대로 응해진다 · 12. 자유 율법에 대하여 · 13. 진리를
찾는 사람들 · 14. 믿음과 의심 · 15. 부활과 재생

Chapter 06.

기도에 대하여



1) 기도는 어떻게 상달되는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도인이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 즉시 상달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 자 함이라. 향연(香煙)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계8:3-4) 이와 같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인 천사는 지상의 어디나 쫓 깔려 있습니

다. 이것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눅3:1 참조) 그리하여 이들 천사들은 각자 일정한 임무를 맡아 분주히 움직입니다. 가령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골라서 상신합니다.

이 경우에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막11:24) 자기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거나,(막4:3) 남을 미워하고 기도하거나,(막11:25) 또는 이유가 적절치 않게 기도하거나, 그밖에 합당치 못한 기도는 천사가 제쳐놓습니다. 이런 기도는 상신해 봐야 응답을 받지 못할뿐더러, 하나님을 번거롭게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기도만 천사의 손을 거쳐 상달되며,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들여 역시 천사의 손을 거쳐 응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천사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향내 나는 예배만 하나님께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이 제단에서 100명의 예배가 상달되었다면 하나님은 여기 해당되는 은총을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아내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즉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의 인정을 받아,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의 눈에 든 다음, 인 치는 천사의 손을 거쳐 인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주님의 기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천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는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의 보고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인 치는 천사는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의 요청이 없으면 역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예배 때나 겨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나 알아줄 뿐이며, 주님의 기억을 받으려면 더욱 영이 맑아져야 합니다.

2)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믿음을 잘 간수하려할 때 가로막는 세력의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기 마련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때로는 터무니없는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본의 아닌 오해로 좌절을 느끼기도 하며, 뜻하지 않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8)고 걱정하였으며,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번이 귀찮게 구는 어떤 과부의 예를 들어,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눅18:7)고 반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세상에 매이기 쉽고, 자기 나름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에 번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적신호(赤信號)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꾸준한 기도와 말씀으로 이를 과감히 물리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미처 모르고 무작정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던 전도사 시절에는 마치 쪽배를 타고 거센 바다를 헤쳐 나가는 것처럼 믿음에 기복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면 두렵고, 파도가 잔잔하면 마음이 평온하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믿음이 해이해 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신앙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 후 단에서 내려와 세상에 나와 살 때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십일조의 생활도 어김없이 하였으나,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난관에 부딪치게 될 때 나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되는 게 없는가?” “내가 길을 잘못 잡았는가?”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리하여 나는 일부러 전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젖어, 신앙인이 아니라 사회인으로 생활 전선에서 당당히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열성으로 세상일을 하면 돈도 벌고 평평거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 나는 꿈에 이상한 징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내로라 으스대는 사람들이 저 세

상에서 처참하게 당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 자복하고, 내 목숨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마워, 더욱 열심히 매달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후 주님의 지시에 따라 청량리에서 처음으로 이 역사를 시작했을 때에도 나는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선 역사나 이 역사나 같은 감람나무의 역사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가 하는 불평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앞선 역사는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일어나 3년 만에 전국을 휩쓸었는데, 그 뒤를 이어받은 나중 역사는 하루에 몇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나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어라.” 하고 자포자기하여 혼자서 밤이 깊도록 논두렁길을 거닐면서 마냥 실의(失意)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날 밤 나는 이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그렇게 당하였는데, 그 정도를 이기지 못해 딴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급히 무릎을 꿇고 다시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은혜 투정을 하는데, 지금은 전과 다르다. 전에는 값없이 주었으나, 받은 자들이 그것을 다 짓밟아 버렸다. 이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확증이 보일 때 주기로 하겠다.”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치리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두 기계를 다 하늘에서 사용하지만 운전 방식은 같지 않으며,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옥토에 뿌린 씨앗이 한 번 마귀의 밥이 되면 하나님에게 여간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법을 달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받들어 어떤 비바람이 닥쳐와도 요동치 않는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지금은 금같이 연단하여 주 앞에 세우는 역사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조그마한 시험에 낙심하고 떨어져 허랑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신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신앙은 하루 이틀에 몸에 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마귀가 훼방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한 번 주를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약동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주님과 자연히 거리가 멀어져 무관하게 됩니다.

신앙은 이론으로도 알아야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

니다. 그 속에 주의 성령의 감동, 즉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울리는 팽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적이거나 기사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희한한 이적, 기사는 한때 사람들을 분발케 할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믿음이 식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선 역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와 앎과 꾸준한 노력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며, 이때 주님과 굳게 연결됩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평평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그 속에 주의 성령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눅11:9-10) 이것은 주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 심령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이 말씀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기도에 좀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산에 가서 몇 주일씩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겨운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여!” 하고 한 마디만 해도 금세 은혜가 연결되어 응답을 받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는 곧 응답을 주시고, 누구의 기도에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감감무소식일까요?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요컨대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11:1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자세부터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번번이 땅에 떨어져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면 이보다 더 애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사실상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즉 기도드리는 장본인의 마음이 정결하면 쉽고, 그렇지 못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정결한 곳이므로 정결치 못한 기도는 상달될 수 없습니다.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고, 설사 바쳐도 받지 않습니다.(계5:8-9, 8:3 참조) 아니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선 각자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즉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모조리 내놓고, 진심으로 뉘우침으로써 주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심령이 맑아진 다음에 기도를 드려야 비로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는 자기 죄를 많이 의식할수록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롬5:20)는 말씀은 이것을 가리키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우선 죄의식이 강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믿음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죄에 대해 신경이 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기 죄에 대해 둔감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전도사를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 장사합네 하고 분주히 돌아다닐 때의 일입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다방 한 구석에서 현재 우리 성회에서 단을 지키는 김해성 성회장과 마주앉아 돈벌 궁리를 하다가, “지금 나한테 주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어.” 하고 넌지시 말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단상에서 6년 동안 그렇게 목이 터져라하고 외쳐 왔으나,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외치면 외칠수록 입에서 박하와 같은 은혜가 연결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생수 축복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김을 부는 순간 곧 은혜가 연결되어 그 맹물이 생수로 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이 하는 일이며, 신학을 공부하여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곤욕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렘11:14)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의 기도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곤경에

빠져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릴 때 그 장본인이 주님께 합당하면 곧 성령의 신호로서 은혜가 연결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냉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헛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 우선 자기 자신의 정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다 주 앞에 내놓고 눈물 뿌려 회개하여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기도드릴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의심, 정욕, 미움, 시기, 혈기, 불평, 비방 등등으로 가득 차있으면 주를 골백번 찾아도 헛수고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저분한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 모르는 것처럼 딱한 일은 없지만,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어린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마18:3)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는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우리는 물론 어린이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나, 어린이 같이 티 없고 맑은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뼈 속에서 우러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Chapter 07.

하나님과 모세



구약 시대에 처음 예언한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그 이전의 하나님의 사람들, 즉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 등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만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나, 광야의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순종하기를커녕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불평은 인간의 2대 욕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갖고 온 식량을 다 소비해 버리고 굶게 되자,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만나는 날마다 아침 이슬이 내릴 때에 하루치의 식량이 될 만큼 내

렸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날 분을 주면 백성들이 게을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리(治理)는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주는 그런 양식을 날마다 받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주는 만나도 처음 얼마 동안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 맛도 고소하고 달짝지근하여 먹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척 고맙고 감격스러웠으나, 날이 가고 달이 가서 해가 바뀌는 동안에 차츰 시들해지고 나중에는 먹기 싫어지고 짜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양식은 인간의 정욕을 점점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육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인간의 2대 욕망이 감소되어 살 재미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내외간에 의가 상하여, 당신 때문에 이 지경이라는 등, 모세 그놈의 말에 귀가 나발 만해 고스란히 속았다는 등,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화살은 자연히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러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겠다. 이 고생을 시키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하고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서 식구들끼리 울며불며 떠들어대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는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저의 목숨

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저는 혼자서 이 사람들의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민11:11)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하소연이자 트집이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로와 유지들 70명을 모이게 하여라. 내가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어 네 짐을 나누어 담당하게 하마.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줄 터이니 그런 줄 알고 미리 알려라. 너희 중에 함께 거하는 나 여호와를 멸시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며 떠들어대니, 될 말이나?”(민11:16-20 참조)

모세는 놀랐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제 발로 씩씩 걸어 다니는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일 수 있단 말씀입니까? 세상의 양과 소를 다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쓸어 모아도 안 될 줄 아옵니다.”(민11:21-22)

여기서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도 가르 모세가 이 얼마나 얼빠진 반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모세야, 나 여호와와 손이 짧아서 안 된다는 거냐? 그럼 내 말이 그대로 응하는지 두고 보아라.”(민11:23) 모세는 코가 쑥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기는 했으나, 정말일까 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가 그 70명을 장막 근처에 불러 세우자, 언약

대로 이들에게 성신을 주어 능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 능력은 물론 모세에게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해 말하면, 모세는 바다를 갈라놓을 수 있었으나 이들은 개울이나 갈라놓을 정도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근처에 강풍으로 메추라기를 날려 보냈더니, 힘깨나 쓰던 자들은 더욱 욕심을 부려 많이 주워 갔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모세에게 앞장서서 원망을 하던 불평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재앙을 내려 이들로 하여금 식중독에 걸려 고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번 본때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노하신 - 더디 노하시지만 - 하나님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屬性)에서 이러한 양면(兩面)을 아울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만 알았다가는 나중에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출32:9-10)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줄 알았는데, 왜 당신의 선민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차별 대우를 하실까? 똑같이 당신이 지으신 아담, 하와의 후손들인데...” 하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예뻐하시고, 이방인이 악해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하고 악한 것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큰 은총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경륜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귀를 완전히 무찌르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략상 선민을 택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의 언약(창17:8)을 이행하기 위해 세운 종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는 어느 의미에서는 전무후무한 종으로, 이적과 기사는 주님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일단 언약을 맺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창17:10)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하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려도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제사는 아무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무할례자의 제사도 받아들여려면 과거의 언약을 일단 폐기해야 합니다. 이 언약을 폐기시킨 분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은 언약은 계명이며, 모세는 두 가지 언약, 즉 할례와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가 되며, 이에 따르는 책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책벌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언약의 폐기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에 직면한 것을 앞에 인용한 본문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로 당신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폭탄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주책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언대로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모세의 한 가족만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진멸하는(출32:10)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고스란히 폐기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광야에서 자기와 고락을 같이해온 믿음의 형제들이 하루아침에 흠으로 돌아갈 참상을 생각하니, 너무나 끔직하여 가슴이 미어질 듯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

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출32:11-13)

하나님께서서는 모세가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할 줄 아시고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고 미리 당부했으나 그래도 호소하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는 뜻을 돌이키고 당신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모세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고하였던들 일은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이런 점에서는 위대한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지시대로 금송아지의 소동을 부린 무리 3천 명을 골라내어 목을 자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만일 자기 기도를 받아 주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 달라고 했습니다.(출32:32)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노릇을 못하겠다는 생떼요, 최후통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

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서서히 그 죄를 보응하겠다고 일렀습니다.(출32:34) 모세는 이것까지는 말리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끝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광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께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한결 원활하게 되었지만, 치리의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에 동참하여 주의 피를 모독한 백성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이 단상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려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Chapter 08.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줄줄이 깊은 진리가 담겨 있지만, 그것은 요컨대 인지(人智)의 발달에 어쩔 수 없이 보조를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한 것이므로 시대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활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의 사람과 원자탄과 레이저 광선 무기로 싸우는 시대의 사람에게 하실 말씀은 당연히 다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내세워 새로운 지시를 내려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한 것도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선지자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성경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약을 크게 해소시킨 것이 주님의 4복음

서입니다.

그러나 이 4복음서 역시 당대의 여건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주님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었으며, 바울을 비롯한 몇몇 사도들이 이 성령 -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불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4복음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심화시킨 글을 한데 묶어 신약성경으로 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글이나 선교사나 목사들이 외친 설교는 이 신약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는 우리가 적어도 근 이천 년 이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을 키워온 셈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주의 뜻은 물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4복음서에 나타나 있으며,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 행동 기준을 정합니다. 즉 이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니 해야 하고, 저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4복음서에 기록된 주의 뜻은 지금부터 이천 년 전의 것으로, 깊은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16:12-13)라는 주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까지도 포함한 당시의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아주지 않으므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해야 할 깊은 말씀은 거의 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4복음서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울을 위시하여 성령을 받은 몇몇 사도들이 4복음서의 내용을 많이 보충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받은 성령이 불의 한 증거에 그쳤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한계가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도 아직 더 보충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밧모 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사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물론 박 아무개, 이 아무개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불의 한 증거가 아니라, 불과 생수와 이슬 – 이 세 증거의 보다 강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긴자가 나타나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깊은 말씀이 쏟아져, 그 역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 하며, 주의 뜻이 더욱 분명히 부각되게 마련입니다. 이긴자는 물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될 일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주님은 세 증거의 다른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긴자를 통하여 이 땅에서 생전에 못하신 말씀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긴자는 상대방의 신앙 단계에 따라 새로

운 말씀을 서서히 터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여서, 그는 이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뵈고 새로운 지시를 받았으나 이 사실을 14년 후에야 발설하고, 그나마 그 내용은 상대방이 감당치 못할까봐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주고, 좁 자라면 죽을 먹이고, 이가 돋아나면 밥을 주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도 상대방의 소화 능력을 고려하여 차츰 깊은 내용을 들려주게 됩니다. 영적인 꿀을 먹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대하여 융통성을 보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나도 아직 여러분이 영의 단계가 어리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말이 많습니다. 아니 이긴자에게 준 '흰 돌'에 기록된 이름에 대한 내용은 아직 거의 입 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말은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서히 터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서는 주께서 근 이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의 내용도 잘 알지 못하여 절절 매는 형편이며, 여기에 좀 색다른 해석을 첨가하면 대 신학자로 추앙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하시지 못한 깊은 말씀을 터뜨린들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성령의 파이프

는 아무 데나 있지 않고 한 곳에만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이프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지만, 동시에 역사하지 않고 교체가 이루어져 항상 한 곳에서 은총의 샘이 솟아납니다.(속14:8)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거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의식은 헛수고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맡기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이 언약에 충실하여 고넬료에게 은혜를 직접 베풀지 않고 천사를 시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주님은 바울을 내세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곧 할례를 폐지시켜 이방인에게도 전도의 문을 활짝 개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신도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몰아세웠습니다. 시대에 따라 펼쳐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면서도 서로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텐성회의 역사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에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며, 주의 종은 그때그때 하늘의 지시에 따라 양떼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의 종, 곧 이긴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며,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자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의 뜻을 받들어 그 섭리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긴자를 통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새로운 섭리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긴자에게 내린 큰 은총에 의해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타난 이상, 이 섭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을 받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영수가 미워도 주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따라야 하며, 이영수가 못나도 주께서 같이하시는 이상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 이영수는 부인해도 그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금 기름'(눅4:12)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실패했건 성공했건 초림하신 주의 유일한 길 예비자였던 것처럼, 이영수가 잘났건 못났건 주께서 세우신 이긴자라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가까운 제자들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져 모세,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마 17:1-3) 갑자기 빛난 구름이 이들을 덮자,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17:5)는 음성이 들려와, 그제야 세 제자들은 주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만 탓할 수는 없는 것이, 육을 입고 세상에 묻혀 사는 인간은 워낙 영의 눈을 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이 세 제자에게 당부했습니다.(마17:9) 말해도 끝이듣지 않고 오히려 욕이 될 테니까요.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 당시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만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어슴푸레하나마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여간 큰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만 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기까지는 많은 파란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영적인 말씀을 던졌을 때, 바리새인들은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냐?”(요8:57)고 욕박질렸습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 앞에서 주님은 차라리 병어리 행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는 상대편인데, 주님이 거꾸로 바보 행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싸움의 한 양상입니다.

오늘날 이긴자의 원리에 대하여 깊이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긴자에 대해 대충 알고 있을 뿐, 아직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원에 좀 더 분명히 알 날이 올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튼튼히 받으려면 이긴자가 무엇인가를 우선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계3:12)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긴자가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 주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Chapter 09.

주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주님을 한 성인(聖人)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어야만 했는지, 그 내막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즉 주께서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이유를 아직도 분명히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말씀의 존재로 계시던 주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면한 과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주님 - 이 얼마나 알곡은 운명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인류에게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육

적으로나 이론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이는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참된 진리는 이성(理性)이나 이론을 초월한다는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면 기독교처럼 허황된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피, 곧 보혈의 귀중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7)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계1:5) 여기 ‘그의 피’는 물론 주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득한 옛날 겻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의 내용은 엄청난 것입니다. 즉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간의 건전한 상식은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좀처럼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교리 자체가 이치에 닿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런 초인간적인 이해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엡2:8)

나는 전에, 피는 생명이며, 혼은 핏속에 깃들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혼은 넓은 의미에서 정신이며, 흔히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영이 맑아야 하는데, 누구나 죄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시51:5) 영이 흐려 마귀의 조정을 받기 쉽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영이 맑지 못한 것은 공통된 사실입니다. 지구상에서 영이 맑은 분이 생존했다면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인간이요, 또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원죄, 유전죄)를 지니고 태어나 다시 죄(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번번이 영이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영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피가 흐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핏속에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깨끗해지려면 피가 맑아야 합니다.

이 흐려진 피를 맑히는 종교적인 의식이 제사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짐승(송아지, 양, 비둘기)의 피로 어느 정도 죄 사함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주의 피, 곧 성령의 제사로 온전히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피를 정결케 함으로써 영을 맑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죄를 사하려면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22)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이렇게 문제 삼아 피로써 피를 씻어 죄를 사하려고 하십니까? 신령한 아담, 하와가 죄에 떨어진 후로 마귀를 발등상 시키고 이룩하려는 하늘나라

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려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을 배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는 인간이 지은 자범죄는 사할 수 있었지만 원죄나 유전죄는 사할 수 없었습니다. 제물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창3:17)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죄를 사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표적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주님 못지않은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지만 남의 죄를 눈곱만큼도 사하지 못했으며, 자기 자신도 태어났을 때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고 율법의 선포자로서 누구보다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산 대 선지자 모세가 이 모양이니, 다른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100% 지키고 제사를 정성껏 드렸다고 해도 원죄와 유전죄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그 영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롬3:20)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마귀를 발등상 시켜 하늘나라를 세우더라도 입주할 백성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하늘나라는 있으나마나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없는 임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나라의 백성을 배출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저지른 자범죄는 물론이고, 뱃속에서 타고난 원죄와 유전죄까

지 사할 수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데, 아담, 하와가 죄에 떨어진 이후로 세상에는 그런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이 흠과 티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말씀의 존재로 계신 주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근본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로, 마귀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골2:2)

주의 보혈은 이룰테면 하나님께서 감춰둔 최대의 무기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비로소 배출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 이후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모든 성도들도 주께서 대속해 주신 피 권세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마27:52-53 참조)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벰전4:6)는 말씀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은 요컨대 영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아담은 사망을 주었으나, 둘째 아담(주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은 오늘날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우리 피를 맑혀 죄를 씻어 줍니다. 생수는 피의 소독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안찰할 때, 여러분의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것은 여러분의 더러운 피가 깨끗이 씻겨 영이 맑아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자범죄가 있을 수 없는 갓난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hapter 10.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이상 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계2:4)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으나, 차츰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나 처음에는 일종의 호기심에 끌려 열의를 보이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차츰 시들해지기 쉽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누구나 열을 올리지만, 차츰 냉랭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믿음에 김이 샌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덤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6)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에 김이 새지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튼튼히 키우려면 알기도 해야 하지만,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언제나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론보다 행동이 더 소중합니다. 즉 그 믿음으로 심장이 항상 고동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치는 알겠는데,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으면 몸뚱이는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죽만 남아, 믿는 시늉을 할 뿐입니다. 그는 계산을 앞세워 주의 일에 앞뒤를 재고 대가를 요구하며 손해나는 일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를 잘 믿고 못 믿는 것은 우선 그 마음의 열도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줄줄 외워도 마음이 냉랭하면 그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에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열입니다. 즉 상대방을 뜨겁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서로 만나 선물이나 주고받는다면, 그런 싱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벌써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이외의 것, 즉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 이론이 살아 있어도 주께서는 같이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슴이 냉랭해지면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은혜가 떠나는 것은 마치 아편쟁이에게 아편이 떨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지만, 아편쟁이는 아편을 맞지 못하면 맥을 못 씁니다. 그래서 아편이 떨어지면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도 팔아서 아편을 사들입니다. 신앙도 은혜가 떠나 냉랭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은혜 줄기를 잡아야 합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옆을 볼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믿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후끈 달아 있습니까, 싸늘하니 식어 있습니까?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합니까? 그렇다면 하루 속히 열을 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주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이라면 팔을 걷고 나서던 시대로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은혜로 연결되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질투, 비방, 불평 등이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몇 시간씩 계속해서 찬송을 불러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멍에가 조금도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가운데 젖어 있습니까?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는 것처럼 신앙의 거울에도 자주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마 12:43-45)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쏟은 후에 되어 가는 심령 상태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심령이 일곱 곱절이나 더 더러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덴성회는 앞선 역사에서 은혜를 받았다가 쏟았거나, 혹은 실망하고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씻어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7배나 더러워진 심령을 다시 깨끗이 씻어 세우려면 일곱 곱절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즉 하루에 받은 은혜를 쏟은 후에 다시 씻어 세우려면 한 주일이나 걸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도 7배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 은혜도 여기 비례해서 강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접어들지 않고는 혼자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부흥 집회에 나가 몇 주일씩 단식하고 밤을 세워가면서 기도하여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은혜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 희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라.”(단12:10)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연단이란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주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긴자를 만나 쉽사리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평탄한 믿음을 가질 생각은 마십시오.

Chapter 11.

말씀은 그대로 응해진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면 우선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잘 안다는 말은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있는가를 훤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줄줄 외워도 그 깊은 뜻을 모르면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은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계(會計)하는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이 도저히 갚을 가망이 없는 종의 빚을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은 자기가 꿇준 돈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옥에 집어 넣어 기어코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임금은 그 종을 크게 책망하면서 빚 1만 달란트를 받아내기 위해 그를 옥에 가두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18:35)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을 테지만, 아마 그 런가보다 하고 무심히 넘겨버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 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자기 죄를 다 사해 주었는데 남의 작은 허물을 탓하다니, 분수가 없어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여 남을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보면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를 위해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도 말고 덮어놓고 눈감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비를 가려 진리가 비진리를 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인이 죄인을 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아래로 뛰어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수모를 묵묵히 참고 견디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사53:7) 이 경우에 저들의 조소와 멸시는 욕되기는커녕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옵

소서.” 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들을 미워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조리 죽여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보기에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비위가 상하면 믿음의 형제를 짓밟아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를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흔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인간의 법도가 다른 점이 이 런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가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비참하게 된 것도 이 때문 입니다. 그들은 뜨겁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제단을 쌓고, 십 일조의 생활을 하고, 청춘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 모든 공로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자기 죄만 탕감 받으려는 사람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서 억울한 욕을 먹고도 참아야 합니다. 이건 말이 쉽지, 정작 당하게 되면 참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교역자 생활을 할 때 이런 변을 많이 당했으나 한 번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의 허

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막상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미운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나 참고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주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남을 미워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입을 봉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결국 패배할 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즉 주님 본위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꼽고 치사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본위로 살면, 도저히 말씀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과 절대로 답을 쌓아서 안 됩니다. 기왕에 쌓은 답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하여 하루 속히 허물어 버리십시오. 상대방을 비방하면 지고 맙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참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악은 순간을 못 넘기는 데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참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사

단은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따라서 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저촉됩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남을 깎아 내리려고 하며, 남을 비방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Chapter 12.

자유 율법에 대하여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류는 줄곧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즉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이처럼 인간과 교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류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나 인간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령 지구가 평평하여 그 가장자리에 이르면 천만 길 아래로 똑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교류하시며, 오늘날 지구가 둥글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역시 거기 어울리는 수준에서 교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시대에도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하십시오. 예컨대 나는 한국 사람으로 다른 나라 말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영어로 이래서 저래라 지시해 봐야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반드시 한국말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만일 미국 사람으로 영어밖에 모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영어로 지시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시대와 환경과 습성 및 여건에 맞춰서 적절히 역사하십니다.

5천 년 전의 인간의 지식과 사고방식은 오늘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그만큼 판이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같은 감람나무에 대해 스가랴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시대적으로 약 600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즉 스가랴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 시대의 선지자이며, 사도 요한은 근 1,900년 전에 주께서 세우신 신약 시대의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람나무에 대해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과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에서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여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과 자유의 율법이 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반포하시고, 자유의 율법은 당신의 아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히10:16, 렘 31:33) 이 말씀은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주님이 바울을 내세워 할례를 폐지시킴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율법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율법을 반포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율법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포한 것으로, 당시에는 적합하였으나 차츰 세월이 흘러 세상이 개화되어 사람들의 사고방식(思考方式)이 변하게 되자 이 율법에 여러 가지 모순과 허점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일률적(一律的)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개개인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기만 하면 동기(動機)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 율법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정죄할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했지만, 만일 이 증인의 입만 막으면 엄연히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후세에 와서 권력자나 부유층은 증인을 적당히 매수하여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올바로 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율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자유의 율법으로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 법도를 정한 것입니다. 죄의 내용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적어도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얼버무려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일정한 규례가 없으며 각자의 처지와 여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가령 심한 신경통으로 잘 걷지 못하는 노인은 몇 달 만에 간신히 한 번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은 그를 기특하게 여기지만, 건강한 사람이 날마다 교회에 나와 살다시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죄도 신앙의 체계가 선 사람이 범했을 경우와 교회에 나온 지 며칠 되지 않는 사람이 저질렀을 경우는 그 경중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의 율법은 각자의 정상을 참작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결과에 치중하고 자유의 율법은 동기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그 피가 정결한 만큼 죄 사함을 받지만, 자유의 율법을 범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던 은혜가 끊기며, 회개하여 다시 은혜 연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에서 감동을 받았던 감각적으로 신비로운 은혜 체험을 했던 그 후에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 가슴이 냉랭하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므로 자유의 율법에서는 구태여 증인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 보혜사 성령이 살피시는 것입니다. (속3:9, 4:10)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같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유의 율

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유의 율법을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은혜는 끊깁니다. 그리하여 빨리 다시 은혜줄을 잡지 않으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 연결을 받기도 하고 놓치기도 한 체험이 있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 연결을 받아 하나님을 뜨겁게 섬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줄 알라.”(약2:12)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율법을 지키려면 모세의 율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에 이르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자유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며, 자유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반열에 속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없습니다.

Chapter 13.

진리를 찾는 사람들



주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해 봤댔자 마이동풍(馬耳東風)일 터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유의 하나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마22:2)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임금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진수성찬을 차리고 고귀한 사람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더 큰 이해타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하면서 오지 않으므로 임금님은 아무나 불러오게 했습니다.

원래 임금이 베푸는 혼인 잔치에는 고관대작이나 지주, 실업가 등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마련이며, 아무나 얼굴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세상 재미를 보기에 바빠서 참석을 거절했으므로 결국 무식하

고 가난한 약자들이 임금과 자리를 같이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예고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권력, 명예, 돈이 있어 내로라하는 사람들은 여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다. 혹시 섬기더라도 형식에 그칩니다. 힘쓰고 애쓰는 골치 아픈 예수 대신, 쉽고 편안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이 몸에 배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겹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자 중에서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저들은 거의가 세상을 택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수를 따르려다 그만둔 돈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상기할 것 없이, **(마19:22)** 오늘의 현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면 세상을 멀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참는 생활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22:11-13)** 이 예복은 남의 것을 빌려 입거나 양복점에 가서 맞춰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눈과 같이 깨끗해지고 수정처럼 맑아질 때 입을 수 있는 영의 옷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요컨대 이 예복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장애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너무 평안해도 예수 믿는 데 지장이 됩니다. 그래

서 야고보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약4:9)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안하고 쉬운 것을 원하지만, 주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중에 십자가를 질 때 거기 주님이 계시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기를 내세울 때 주님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가진 것이 너무 있어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없어도 좋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어서 시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사람은 없는 것같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같이 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어렵고 까다로운 일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정성껏 섬길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바치게 됩니다. 즉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주의 명에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의 명에 무겁게 생각된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받으나마나 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가슴이 냉랭합니다. 그런데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주의 것이 담기지 않았으니,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 뿌려 주께 호소해야 합니다.

찾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 끝내 주와는 멀어져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모저모로 다 뒤보고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비로소 인 치는 것입니다. 만인이 우러러보고 칭찬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성껏 주를 섬기는 것만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까?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hapter 14.

믿음과 의심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어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 육에 매여 있는데다가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건 아래서 살고 있으므로 영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을 잘 간수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 신령한 것을 맛보고도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것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육만이 아니라 혼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된 것입니다. 이 혼은 많이 더럽혀지고 적게 더럽혀진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혼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수신기(受信機)입니다.

그런데 이 수신기는 녹이 잘 슬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

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이켜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다 육의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깊은 철학적인 진리를 탐구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는 것도 영의 세계와 인연이 먼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거의가 인간의 재능으로 하는 일이며,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외부세계를 살펴봅시다. 우리를 에워싼 이 우주는 해와 달과 별이 찬란하고 광대무변하여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주의 공간에 있는 수백억의 별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넓고 큼니까! 실로 천문학적(天文學的)인 숫자로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그러니 이 별들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의 세계를 어찌 인간의 머리로 짐작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전2:10)** 영의 것은 영의 것으로만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은 다른 천체에도 생물체가 살고 있지 않나 해서 깊이 연구해왔으며 오늘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달에 인간도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예상했으나, 막상 가보니 인간은커녕 공기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천체 중에서 오직 이 지구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갖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밖에서 태초에 인간보다도 천체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에 그 많은 천체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자식이라, 지구에서 밤에나 저 무수한 천체를 한낱 허공에 반짝이는 별로 희미하게 바라볼 뿐, 우리에게 직접 쓸모가 없지만, 죄짓기 이전의 신령한 아담, 하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므로 달에 가려고 해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특수한 우주복을 입고서야 비로소 1초에 40리 가는 속도로 사흘 반 걸려 달을 밟아볼 수 있으나, 흠과 티가 없던 아담, 하와는 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눈 깜빡할 사이에 달은 물론 다른 모든 천체에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가 이웃 마을에 가듯이 천체에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우주는 한 마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겨우 제 발로 걸어서 해발 8,847미터의 에베레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장하다고 떠들어대는 처지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인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 영이 그만큼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육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체가 되면 신의 요소로 온전히 환원하기 때문에 범죄 이전의 아담, 하와와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우주에 끝이 있느냐의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신비를 운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우주보다 훨씬 신비로운 세계에 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세계는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아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공자나 석가와 같은 한갓 성인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영의 것을 알 수 없다는 대표적인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다른 신학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쪽 다 막연하기는 매일반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그래도 영생의 소망 하나 바라고 일생을 고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유일한 사자(使者)입니다. 우리는 이 사자를 통하여 영계와 접선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영의 세계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적어도 지금부터 2천 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주님과 교류한 내용이 오늘날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이 단상을 통하여 터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도 듣는 사람의 귀가 신령해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그릇의 신령한 정도에 따라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곧 주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설사 불우한 역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괴롭고 귀찮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여건으로 간주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시키십시오. 평안한 환경 속에서는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자기 신상에 원치 않는 어떤 구멍이 생기면 채우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이것을 신앙의 활력소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 이 길을 가면서 태평하기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각자 제 뒤통에 매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짊어져야 합니다.

Chapter 15.

부활과 재생



나는 지금까지 해를 거듭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적마다 부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계에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주님이 육을 입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재생(再生)이며, 육을 그냥 입고 있으므로 이 육은 조만간 다시 죽게 마련입니다.

부활이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전15:42)** 육을 가진 인간은 흙으로 빛은 썩을 존재이며,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령한 영체이지만 잠시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려면 불가불 육을 입어야 하고, 하늘나라에 오르려면 육을 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세계와 이 땅의 생활 조건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육을 입고 땅에 오셨으므로 굶으면 시장기도 느끼고 세월이 지나니 늙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주님이 이런 육을 그대로 지니고 부활했다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물론 육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때 홀연히 변하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했습니다.(**고전 15:51-52**)

주님은 썩을 육신을 입고 계시다가 썩지 않을 신령한 본래의 원체로 돌아갔으므로 부활 이전과 이후는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동산지기로 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어떤 길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육을 입은 옛날의 주님이 아니라,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신(變身)이 자유 자재한 신령한 몸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힌 방에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불쑥 나타나시곤 했습니다. 주께서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못 자국이 난 손바닥을 만져보게 하신 것은 잠시 그렇게 변모했을 뿐이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눅24:42-43**)

부활 후의 주님은 이와 같이 육에 매인 조건이 아니라, 육을 초

월한 영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사신 것이 주님의 부활이라면,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으로 죽은 것이 곧 아담, 하와의 사망입니다. 그리하여 그 후손들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지만, 죽지 않는 신령한 영체로 회복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의 피공로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영원한 그 나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본래 신령한 영체로, 육신을 입어도 죽지 않을 요소를 지니고 계셨으므로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십자가에 못 박아 육의 장막은 헐어 버릴 수 있어도, 거기 담긴 신령한 영체는 아무 손상도 입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령치 못한 몸이라, 그 냥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의 피로 거듭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의 주님은 본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 영광의 주님으로 환원되었으므로, 잠시 육을 입고 나타났다고 해서 붙잡아다가 다시 십자가에 처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33세의 피투성이 주님으로 부활이 아닌 재생되었다면 주님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인(哲人)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아무 가치도 없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육적인 재생이라면, 하늘나라에는 늙은이, 어린이, 다리병신, 소경, 언청이 등이 우글거려 이 세상과 비슷할 것입니다.

지상에서 악의 세력을 발등상 시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유사 이래의 억조창생이 일제히 일어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마귀 편에 선 자들은 그 죄상의 비중에 따라 마귀의 형상을 많이 닮기도 하고 적게 닮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하게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기도 하고 적게 닮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심판을 거쳐야 하고, 심판을 거치려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지성소에 가 있는 영혼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하나이까?”(계6:10)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심판이 베풀어지기를 고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피를 신원한다.’는 뜻은 물론 원수를 갚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뜻 깊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참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도 주의 뒤를 따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Part 04.

우리도 이기리



16. 정신 무장을 든든히 하라 · 17. 우리의 할 일 · 18. 신앙은 싸움이다
· 19. 알곡과 쭉정이 · 20. 방언은 은혜인가? · 21.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 22. 요나와 니르웨 성 · 23.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
24. 오늘의 우상 숭배 · 25. 심판에 대하여

Chapter 16.

정신 무장을 든든히 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엡6:13)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의 표징으로 수천 년 동안 지켜온 할례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하늘의 법도(자유의 율법)를 전하라는 사명을 맡고 고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가 지상에 베풀어질 때에는 유난히 사단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공은 으레 가시밭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종들 치고 평탄한 길을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으레 비난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이들 하나님의 종들이 저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귀는 먼 이방인이 아니라 가까운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 교묘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외식(外飾)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못된 조상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하니...”(마23:29-30)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말씀은 우리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분명히 예언된 성경 말씀대로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기독교사상 전무후무한 큰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건만, 이 엄연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령한 것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막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 불러 주시고 일깨워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고, 따라서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감동을 느끼며, 감동을 느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

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생기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게 마련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등에 업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유일한 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생활 태도입니다.

내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 역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나는 한 번도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만큼 주께서 우리의 역사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종뿐만 아니라 이 역사 안에 들어와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움직임도 세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 성도님들이 남달리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를 불담으로 지켜주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시는 것은 이영수가 남보다 선량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맡긴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 안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기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으며, 모두가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쯤 빠져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이 역사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뛰면 힘이 납니다. 또 힘이 나아만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이것부터 생각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남을 시기하여 혈 쫓고 앉았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패망하여 국토가 온통 쑥밭이 된 독일이 10년도 못되어 나라를 재건하여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부강한 국가가 된 것은 국민 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할 때에는 먼저 내부에서부터 침투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끼리 사랑으로 푹푹 뭉쳐 이 외부의 적을 과감히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화끈 달아올랐다가 날이 갈수록 시들하여 흐지부지된다면 그건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 역사에 발을 들여놓은 여러분은 너나없이 알곡이 되어 다 주님으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100명이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수만 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특공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두령 중에서 오직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만이 하나님의 눈에 들고, 나머지 10명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을 칠 때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만 골라서 적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소수의 정예군으로 다수를 무찔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이 도전을 물리쳐야 합니다.

Chapter 17.

우리의 할 일



1) 모세와 여호수아의 교훈을 거울삼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난 육천 년 동안 역사해 왔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두 증인, 곧 이긴 자를 보내어 당신께서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마지막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며, 또한 성령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내세워 역사할 때에는 언제나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로 뭉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이 요구를 이루

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노여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안 될 듯한 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면 될 듯한 일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아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으로 뭉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이나 한다면 날마다 점심을 싸들고 전도하러 뛰어다녀도 헛수고에 그치게 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이 점을 크게 염려해야 합니다. 앞선 역사가 왜 오늘날 저 꼴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사람이 모자람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여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움직임이 아름답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일관된 철칙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젊은 2세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모세와는 판판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한결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따르던 장년들이 광야에서 다 늙어 죽은 다음에 세우심을 받은 영도자로서 모세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

다. 그는 모세와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까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맞이한 큰 장애가 이방의 군사기지인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는 장정들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의 경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면서 법석을 떠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는지 미처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금송아지를 떠받드는 것이 잘 하는 일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특하면 불평을 터뜨린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지의 소치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휘하의 제 2세대에게는 무엇보다도 순종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묵묵히 따랐으며, 이 때문에 약속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응분의 자기 분깃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정신 무장을 철저히 시키지 않았던들 여리고 성을 하루 이틀 돌다 말고 불평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적을 쳐부숴야지, 왜 돌기만 하느냐?”, “괜히 물자와 시간만 낭비하지 않느냐?”, “싸우지 않을

것을 뭐 때문에 무장을 했느냐?” 등등 저마다 한 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따르는 자들은 모세 때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묵묵히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대한 작전 내용은 알지 못했으며, 또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호수아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여호수아는 그 내용을 선불리 백성들에게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적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는 오직 순종만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암흑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다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사58:9-11) 이 말씀은 비단 이사야 선지자 신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앞선 역사의 큰 은혜 가운데 접어들었다가 실망한 나머지 손가락질과 허망한 탄식 소리를 내는, 은혜에 주린 자와 믿음이 식어 괴로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심정에 다시금 은혜로 감동을 주고 그 빈 마음을 채워, 만족케 하여 생명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

저 은혜 가운데 젖어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고,”(고전8:1)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벧전4:8) “사랑은 이웃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롬13:10)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맡았다 - 다 소용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못 받은 것은 오직 사랑이 있느냐, 없으면 얼마나 있느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충만하면 은혜를 받은 연고요, 사랑이 메마르면 은혜를 받지 못한 소치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은혜, 은혜 하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며, “영혼을 만족케 하고 뼈를 견고케 하며 물댄 동산 같을”(사58:11) 수 있으며,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사58:12)라는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액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의 일이라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께서 굳이 역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이 헛수고에 그치고 맙니다. 기껏 고생하고 하나님의 기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역을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선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앞선 역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부러워하고 기대하는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고도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우선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즉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녀야 할 마음의 기본자세입니다. 전도도 좋고 주의 일에 열성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바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백성들이 덕을 끼칠 때 힘이 솟아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기어코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단상에 서서 외친다 하더라도 똑같은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나는 다만 주님의 나팔 노릇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이 큰 역사 속에 들어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깊이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일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있습니까? 선으로 갚으십시오. 믿음의 형제끼리 맺힌 응어리가 있습니까? 푸십시오. 하기 어려워도 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6년 동안 이 역사를 위해 청춘을 바쳐왔으며, 앞으로도 바칠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를 희생시키면 많은 사람이 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기독교는 어떤 이념(理念)이나 교리, 또는 교훈에 그치지 않고, 성령에 의해 영계와 부단히 교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사4:1-4)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느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손에 붙여 많은 사상자를 내겠으며, 이로 말미암아 혼기를 잃은 처녀들이 무더기로 한 남자에게 가서, 먹고사는 것은 손수 마련하겠으니 명색으로나마 자기를 아내로 삼아, 처녀 귀신이 되는 수치나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사야 당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앗수르의 손에 붙여 그런 참화를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치셨을까요? 당신께서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方伯)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흘러 “가난한 자의 얼굴에 멧돌질을 하고, 시온의 딸들은 음탕하고 사치에 빠졌기”

(사3:15-16)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통고를 받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쓸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난리 중에도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에서 녹명된 사람들”(사4:3)을 깨끗이 씻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위한 파괴를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자는 믿음이 독실하여 하나님의 은총 아래 환란 가운데 건짐을 받아 그 명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녹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난리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남긴 옛일을 상기하게 됩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왕비 이세벨의 핍박을 받아 동굴에 숨어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壇)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왕상19:14)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하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왕상19:18) 하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심원하여, 인간의 머리로는 이루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신 한 장면이지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매여 자행자지(自行自止)함으로써 기대에 어긋났을 때, 환란을 일

으며 당신의 백성 중에서 녹명된 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쓸어버리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 다시 예언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10:10-11 참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현실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뽐힘을 받아 거룩하게 된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수가 많이 배출되면 하늘에서 더러움을 씻는 생명수의 샘물이 넘치도록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총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도록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명목상으로나마 남편이 되어 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비참한 광경은 벌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차츰 궤도에 오르고 있으므로 내년쯤 가면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새로운 지시를 계속해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움직임은 이처럼 긴밀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약4:8)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 나가면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Chapter 18.

신앙은 싸움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난 육천 년 동안에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그때그때 하시 고자 하는 일에 대해 새로운 지시를 내려왔으며, 또 지금도 내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이모저모로 역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79년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이천 년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하신 가르침으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

달된 시대에 오셔서 역사하셨다면 당연히 오늘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내용도 상당히 달랐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마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께서 이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으나, 주님은 순서대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알기 어려운 원인의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앞뒤를 맞춰서 풀이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줄기를 잡으면 탄 줄기가 나오고, 한 매듭을 풀면 다른 매듭에 얽히고 하여 여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맞게 연결 지어 놓을 때, ‘머리는 여기고 꼬리는 저기’라는 식으로 비로소 전체의 뜻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의 검’으로 자기를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향해 권능을 행사하실 때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내세워 적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은총 가운데 불러들이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 자세가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생스럽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즉 영을 무엇보다도 귀히 알고 ‘좁은 문’

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16:24)는 주님의 당부는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19:27) 해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인을 만나지 못한 농부는 그의 포도밭에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따라서 그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세상에 오셨을 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다만 주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전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옛 뜻을 전한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것에 충실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이런 요구가 계신 것은 요컨대 마귀를 무찌르기 위한 전술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궁극의 목적은 마귀의 섬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

가 주는 올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운 예수를 믿다가 마귀의 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다만 머릿속으로 믿고 슬슬 따라만 가면 구원을 얻으려니 하고 마음을 툭 놓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이 누구냐고요?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가 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자기가 번번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도 일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우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즉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성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나머지 주의 일은 자동적으로 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를 계산하면서 믿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당신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살을 깎아서 모은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들이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저분이 세상에 안 계신데 내가 살아서 무엇 하랴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니 저 비싼 향유를 발에 붓다니!”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다는 마리아를 미친 년 취급을 하고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 향유를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문제없이 받을 텐데, 그 돈으로 가나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말입니다. 유다로서는 이치에 닿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가상하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바치고, 유다는 앞뒤를 재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유다처럼 재산을 앞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향유를 주님에게 바치지도 않았을 테지만, 바쳐도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심에서 우러난 충성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Chapter 19.

알곡과 쪽정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마13:47-50)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두려운 내용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데, 이때 천사의 뽑힘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요약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천국 티켓(입장권)

은 이미 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의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어들어 택함을 입어도 천사에게 버림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은총 가운데 접어들었는데도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부름을 받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악령의 발악이 옛날 주님 당시보다도 더합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예수 믿는 자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를 식은 죽 먹듯 합니다. 오늘날 마귀가 인간을 낚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음란이고, 둘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는 이 두 무기로 사람들을 수중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마귀를 지남철이라고 한다면 이 무기로 사람들을 쇠붙이로 만들어 자기에게 꼼짝없이 끌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남철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마귀의 농간인 쇠붙이의 요소를 자기 몸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나무나 돌과 같은 존재로 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쇠붙이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 지남철을 휘저을 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동적으로 거기 끌려가 붙게 마련입니다. 이 첫째 무기인 음란에는 이른바 마음의 간음까지도 포함됩니다. 다음에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에

서 이 두 가지에 저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가 어려운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서두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인 치는 천사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면 분주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천사가 먼저 움직일까요, 종이 먼저 움직일까요? 여기서 구약 시대의 몇 가지 사례(事例)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게하고, 천사를 시켜 적을 무찌르게 했습니다.(민10:9 참조) 이 경우에 모세가 천사보다 먼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드온이 장정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적을 물리치게 했을 때에도 기드온이 먼저 움직였습니다.(삿7:22) 즉 하나님의 종이 먼저 움직이고 천사가 종을 도와 역사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땅에서 인 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알곡을 가려낸 다음에 천사가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계14:16 참조)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땅에서 베풀어질 때에는 직접 하나님의 기억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런 일꾼들이 일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비중은 매우 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때 말단 세무원이 납세자를 상대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세무서장과 과장은 결재나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 납세자는 세무서장이나 과장을 상대로 세금 액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그 기도는 1초에 340미터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365일이 아니라 360년, 아니 몇만 년 걸려도 그 기도 소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지만, 천사는 0.1초도 안 걸려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이 하늘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계8:4) 그리고 기도가 땅에서 하늘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성령의 은총도 역시 천사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주의 종이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면 천사는 하늘에 올릴 것이 없게 되며, 따라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보낼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사명이 클수록 자연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보다도 주의 종의 비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이 같이하는 사람은 천사도 판단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고전6:3) 천사는 주의 종을 보필할 뿐, 종 대신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은혜를 부어주게 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천사가 직접 은혜를 부어준다면 구태여 베드로를 통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천사들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도전을 과감히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쉽사리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러므로 죄를 짓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깊은 말씀을 듣고 안찰에 의해 죄 씻음을 받아도 찢찢매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없이 혼자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1년 걸려서 이룩해 놓은 일을 1분이면 허물 수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계교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따라가면 되겠지 해서 안 됩니다. 영의 세계는 냉철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도 되도록 피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피의 찬송은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의 하나입니다.

Chapter 20.

방언은 은혜인가?



나는 방언에 대하여 이미 여러분에게 성서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주께서 다시 이 방언에 대해 보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방언의 근본 의의에 대해 거듭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공경하며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조금만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나타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줄 알고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믿음이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지 못하고 은혜에 굶주려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독초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그것이 생명의 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폐단을 경고하여, 영을 시험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요일4:1) 나는 어느 교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논하는 것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홍수가 났을 때에 대비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성과 대를 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에 기대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저들로 하여금 ‘온 지면에 흠어지게’ 하려고 저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창 11:8)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란 이렇게 흠어진 언어를 다시 알아듣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합당하면 뭉치게 하고, 합당치 못하면 흠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길로 밖에 나가,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말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는데, 저마다 자기 언어로 그들의 말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행2:6)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시일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의 말을 권능으로 조종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성령의 조화였습니다. 마스크가 발달된 오늘날에도 서울 사람이 부산쯤에 가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많으며, 제주도에 가면 더욱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교통이 발달되지 못하고 미개한 당시에는 몇백 리 밖에 살아도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방언을 하여 의사 소통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입을 딱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은혜 받게 해 달라고 베드로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이방 사람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린다.”(눅8:23)는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 방언의 권능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루에 3천 명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행2:41) 베드로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를 부러워하여 저마다 방언 받기를 원하고, 또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너도나도 방언을 하게 되었으나, 주의 종인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온전한 방언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릇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방언은 제3자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초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훨씬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보다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자까지 등장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는커녕 정신이상자로 알고 손가락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언에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내세워 방언을 폐지시켰습니다. 이때 바울은 방언을 조심스럽게 비판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언을 폐지한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울보다 더 큰 종이 나타나지 않아 방언에 대한 바울의 말을 올바르게 풀이하여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방언을 폐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켰던들, 구태여 외국어에 능한 바울을 이방 사도로 내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은 당초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즉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방언을 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알아듣는 자기나라 사람에게 방언을 한답시고 뭐라고 썰라썰라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방언하는 장본인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욱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난센스(무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언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았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흥내를 곧잘 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문을 닫았는데 땅에서는 달라고 하니 중간에서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고후11:14) 조심하라고 우리

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무사태평이었습니다. 아니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엘리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전했으나, 저들은 이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그 불필요하고 덕스럽지 못함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 받은 사람을 내가 안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영락없이 몹시 고통을 느끼고 까무러치기가 일쑤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어떤 신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것은 온전한 것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Chapter 21.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인간은 각자 얼굴 모습이 다른 만큼이나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따라서 남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탓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고, 또 같은 종교에서도 여러 파가 갈리는 것도 이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또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에, 또 어떤 사람은 에덴성회로 나가는데, 거기에는 각각 사연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자기 나름으로 보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이러니저러니 비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것쯤은 인정합니다. 하긴 예수를 우리네와 같은 자연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도자 정도로 알고 따르는 종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신성(神性)을 인정하는 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을 인정치 않는다면 기독교는 수도(修道)의 한 수단에 불과하며, 구원을 운운할 여지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예이고,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대체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주하는 데 별로 이의가 없지만, 주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지금부터 이천 년 전 볼품없는 시골 청년 예수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보았으며, 개중에는 예수를 마귀(바알세불)로 보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주님을 잘못 본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마다 자기의 시점(視點)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엘리야로 본 사람은 주님에 대해 그 정도의 눈이 마련되어 있고, 마귀로 본 사람 역시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는 누구나 자기가 똑바로 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신으로 보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를 명실 공히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 이상 어떻게 평가건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사실 주님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예수를 똑바로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서 그런 눈을 갖게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신이요, 신인 동시에 인간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예수의 이중성(二重性)을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불신자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시골의 젊은 목수가 지닌 신성을 알아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열성적인 제자들이 윗저고리를 벗어서 예수가 걸어가는 길에 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고 야단법석을 떨니, 바리새인들은 보다 못해 주님에게, “선생님, 거 당신의 제자들은 제정신이 아니군요. 남 보기에 덕스럽지 못하니 저들을 좀 제지하십시오.”(눅19:39)하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선생님’이라는 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선생님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신격화(神格化)하는 무리가 있으니 실로 한심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를 신격화한 것이 올바른 평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서는 이들만이 당신의 사람이요, 그밖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군식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관련이 없는 사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에게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이 있습니

다. 그것이 곧 마귀입니다.(마4:1 이하 참조)

오늘날 이 땅에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리저리하고 여차저차해서 따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인들은 자기의 판단이 옳은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때에도 그럴 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의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 예비자로 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세례를 줄 때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 일단 자기 사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넘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신경을 쓰다가 자기 제자들의 말만 듣고 끝내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관한 것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며, 자기가 나설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이런 자기 분수를 알았던들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동시에 단 물과 쓴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을 혼동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어도 저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간사한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다짐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적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좋은 거울
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Chapter 22.

요나와 니느웨 성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 교권을 쥔 권력자의 가문에 태어났으나 인간됨은 선지자로 등용할 만한 그릇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종교적 배경이나 학식을 고려하여 죄악이 들끓는 이방의 도성 니느웨에 보내는 선지자로 택했습니다. 애굽 임금이나 고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궁중 생활을 하면서 미리 범절과 안면을 익힌 모세가 적임자였듯이, 이방의 도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요나 정도의 여건은 갖춰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개 평민인 무명인사(無名人士)를 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 성에서는 숫제 미친놈으로 취급하여 내쫓아 버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택할 때 여러 가지 면을 참작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니다.

니느웨 성은 앓수르(Asshur)의 수도로 오늘날 그 폐허에서 궁전 터가 발굴되었습니다. 높이가 30미터나 되는 성이 정사방형으로 에워싸여 있고 인구가 수십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굴된 비문(碑文)은 당시의 문화를 전해주는 좋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영걸(英傑) 니므롯이 여러 조무래기 나라를 통합하여 앓수르를 창건하고 수도로 세운 도성입니다.(창10:10) 앓수르인은 싸움을 잘 하여 패권을 잡게 되었으나, 국토가 거의 다 산악지대라 생활이 궁색한데다가 지능도 뒤떨어져 문화는 별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이 팽배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쓸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선지자가 곧 요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례(特例)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상대하여 역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도성 니느웨에 당신의 종을 보냈을까요? 니느웨 성은 당시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욘4:2) 그렇게 되면 선지자로서 자신의 위신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회피하려고 꾀를 부렸습니다. 그것은 멀리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남들의 눈을 피해 배의 맨 밑바닥에 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시고 그냥 둘 리가 만무합니다. 곧 큰 풍랑을 일으켜 배를 송두리째 삼켜 버릴 기세였습니다. 선장을 비롯하여 선원과 선객들은 갑자기 밀어닥치는 거센 물결에 질겁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저마다 신봉하는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고로 배 타는 사람치고 신을 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배를 함께 탄 사람들은 대체로 다신교(多神敎), 즉 해와 달과 별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서 이들 신을 불러도 풍랑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하도 다급하여 마지막으로 배 밑에 누워 있는 요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신을 믿고 있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소.”

“그럼 그 하나님께 이 풍랑을 좀 가라앉혀 주십사 하고 호소해 보시오. 혹시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건져줄지 모르니까.”

이때 다른 선객들도 배 밑창에 내려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이렇게 갑작스레 풍랑이 밀어닥치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요나는 그제야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

기가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기 때문이 형벌이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겠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는 이미 저지른 죄값으로 죽기를 각오했던 것입니다. 선장과 선객들은 이 뜻밖의 대답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애꿎은 사람을 고기밥이 되게 했다가 풍랑이 더욱 심해질지, 아니면 정말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므로 그를 산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노여움을 풀어 풍랑이 잠잠할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무작정 육지를 향해 배를 저어나갔으나 풍랑은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 용단을 내려 요나를 들어 바다 물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풍랑은 금세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려둘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었다가 요나를 삼킨 지 3일 만에 육지에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에게 다시 지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역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한 번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다가 크게 혼났으므로 이번에는 고분고분 순종하여 니느웨의 거리거리를 누비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깜짝 놀라 요나가 어디서 온 누구냐고 캐어물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 죽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마다 굶은 배움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인간의 목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윽고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요나의 신분과 그 동안 일어난 일이며 백성들의 동태로 미루어보아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백성에게 각자 죄를 뉘우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니느웨 성은 삼시간에 시민들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로 거리거리를 적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려다보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내리려던 재앙을 철회했습니다.(욘3:10)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행적(行績)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경우에 회개할 일정한 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사에 의해 뉘우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내신 종의 말을 받아들이면 귀히 보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걱정하신 계획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관된 기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평소에 명심해야 합니다.

Chapter 23.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사43:7) 즉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전에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14:1-3)

내가 이 말씀을 여기 인용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

을 지으신 목적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14만 4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정예 부대의 숫자로, 이들은 마귀의 세력을 온전히 무찌르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싸우게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예 부대를 필요로 하십니까? 일찍이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되찾으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기만 하면 족한 줄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치는 관념적(觀念的)인 신앙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예정대로 쉽게 이루어지고, 인간은 “주여!” 하고 한 마디 부르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중에 주님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하며,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마11:12 참조)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창6:6) 우주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인간 때문에 한탄까지 하였

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엽의 여섯째 날에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창1:28)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자 이 통치권도 자동적으로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눅4:6 참조)

그러므로 이 통치권을 회복하려면 우선 마귀의 편이 된 인간을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을 도로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회복(人間回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기 전에는 만물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치리하는 인간의 권한이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회복하면 만물은 자연히 회복되게 마련입니다.

마귀가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짓자마자 마귀가 인간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빼앗은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벧후 2:4) 라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여,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를 타락하게 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시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수24:19)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질투를 느낄까요? 질투란 라이벌(경쟁자)이 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이벌이 시시하거나 무능하면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쉽사리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라이벌의 편이 되더라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벌이 강하여 누가 그쪽 편이 될 경우에 자기가 불리하게 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에는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질투를 느낄 정도라면 라이벌이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만일 약자라면 누가 그쪽 편이 되던 내버려 둘 것입니다.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라이벌에게서 도전을 받아 위협을 느낄 때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귀를 섬기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마귀라는 강적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

광스러운 형상대로, 즉 당신과 흡사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으로든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같게 지으셨을까요? 마귀에게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마귀에게 싸움을 걸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싸울 때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는 것보다 망치로 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를테면 인간을 당신의 망치로 지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것을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망치인 아담, 하와를 꼬여낸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결국 마귀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은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기는커녕 마귀에게 유리하여, 차라리 인간을 짓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소중한 무기를 적에게 빼앗긴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만도 합니다.(창6:6)

아담, 하와가 마귀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 숨은 것은 이미 자기는 탄 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이 에덴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 무기를 마귀의 손에서 다시 빼앗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 회복이자 에덴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앗길 때에는 아담과 하와 둘뿐이었으나, 그 후 점점 마귀의 세력이 팽창하여 이를 도로 빼앗으려면 적어도 아담, 하와의 7만 2천 갑절의 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곧 14만 4

천의 하늘 군대입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마귀에게서 났다.”(요8:44)고 비난한 데는 그만큼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70문도를 각지에 전도하러 내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눅10:3)고 말씀하신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만큼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알파는 희랍어 알파벳의 첫째 글자 이름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의 이름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중 에덴동산’을 회복하면 ‘처음 에덴동산’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깊은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설은 이런 각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이어서 천하만국이 마귀의 손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수무책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마귀를 끊임없이 처단합니다. 그러나 일단 천하만국을 손에 넣은 마귀의 세력은 자꾸만 팽창해 나가므로 하나님으로서는 날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본격적으로 소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위에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린 피가 자기를 멸망시킬 큰 무기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골2:2) 만일 마귀가 이 비밀까지 알아내었다더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4만 4천이라는 하늘 군대는 배출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마귀는 영원히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로만 14만 4천 운운할 때는 지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싸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주의 아내를 단시일에 배출시켜 그 수를 실제로 채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내란 무엇입니까? 남남끼리 만나서 누구보다도 흥허물 없는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도와 짐승과 함께 싸울 하늘 군병의 명칭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자가 출가하면 남편의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면 주님의 호적에 오르게 마련입니다. 이 호적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에는 이 어린 양의 아내 이외에는 모두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계13:4) 그만큼 짐승의 권위와 세도가 당당한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아내의 이마에는 주님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계14:1) 그 밖의 무리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계13:17) 적과 자기편을 확연히 분간하게 됩니다.

Chapter 24.

오늘의 우상 숭배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을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思考方式)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땅에 발을 붙이고 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이 육의 세계에 얽매어 여기서 거의 헤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이야기를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아, 그런가 보다 하거나 긴가민가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식을 전할 때 크게 애먹었으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주님이었습니다.

주께서 한껏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면 상대방은 번번이 육의 양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들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 완악한 마음의 벽을 무너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

하여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의 도백(도지사)으로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당신을 찬미하게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높이 약 30미터나 되는 커다란 신상(神像)을 만들고, 낙성식을 올릴 때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여 나팔과 피리와 현금 등, 요새로 말하면 오케스트라(관현악) 연주가 은은히 울려 퍼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신상에 절을 해야 하며, 만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시뻘겋게 타오르는 풀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온 백성에게 공포했습니다.

그러하여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그 신상 앞에 절했는데 다니엘의 친구로 도백에 임명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만은 신상의 양심상 도저히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어 신상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갈대아 사람 하나가 이것을 보고 즉시 왕에게 고했습니다.

“폐하, 저 도백으로 있는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뺏뺏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폐하의 은덕으로 큰 관록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즉시 풀무 불에 던지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 도백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들은 실로 뜨거운 순

교 정신에 불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도지사의 자리를 헌신짝같이 내던졌을 뿐만 아니라 목숨도 바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말을 듣고 꽤 씩하게 여겨 예고대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타죽기는커녕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왕의 눈에는 네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불 속에는 확실히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는 세 방백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단3:25 참조)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자를 보내어, …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단3:28) 그럼 천사가 어떻게 보호했기에 불 속에서도 이들 세 방백은 머리칼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들의 몸에서 냉기를 발산하게 하여 열을 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은 옛날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교역자나 성도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事例)를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핵폭탄 속에서도 재난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하여 기상을 변동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천지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우상 숭배의 개념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란 구약 시대에는 주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도 이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마10:3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돈이나 권력, 명예를 주님보다 더 존중하는 것은 물론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돈에 절하고 권력에 절하고 명예에 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분을 더러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육에 매이고, ‘내’가 살아나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내 자식, 내 집, 내 목숨을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 주신 것이지,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닐진대,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롬14:8)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Chapter 25.

심판에 대하여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20:12) 이것은 이른바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한 후에 벌어지는 광경이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상 중에 본 광경을 곁들여 이 심판에 대해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보좌’는 14만 4천의 왕들이 앉는 자리를 가리키며,(계20:4) 이 왕들이 각각 책과 책들을 갖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곧 ‘생명책’이요, 책들은 ‘사망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왕들마다 각각 한 권씩, 도합 14만 4천 권이고, 사망책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생명책에는 믿음을 잘 지

켜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책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질 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공로를 가려 행위대로 상을 주기 위해 심판하고,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은 죄상을 가려 행위대로 벌을 주기 위해 심판을 하게 되며, 재판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을 받지 않는 왕들입니다.(계20:6) 그리하여 이 왕들이 각각 자기에게 배당된 생명책과 사망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구원도 시키고 멸망도 시키며, 상도 주고 벌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상 중에 본 바에 의하면, 천국 연회장에서 이 왕이 될 자들의 보좌는 타원형으로 죽 배열되어 있으며 주께서 차례대로 앉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에 마련된 좌석이 8천 석인데, 14만 4천의 좌석이 타원형으로 놓여 있는 보좌의 장면을 한 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눈부신, 어마어마한 광경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심판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는 시대별로 구분되어 정상을 참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여 시대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기 몇 년이니, 단기 몇 년이니 하고 구분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성령이 역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역사했으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느냐에 의해 시대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부터 모세 때까지의 율법이 없던 시대와 모세 이후부터 주님 당시까지 구약 시대의 성령이 역사하던 시대, 그리고 주님 이후부터 이

긴자까지의 시대와 이긴자 시대로 크게 구분되며, 같은 죄라도 시대적인 구분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하늘에서 내린 은총과 율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전은 율법이 없던 시대이므로 형벌이 제일 가벼우며, 모세 이후 주님 때까지는 모세 율법 시대이므로 형벌의 비중이 비교적 가볍고, 주님 이후 이긴자까지는 자유 율법 시대이므로 형벌의 비중이 크고, 마지막 이긴자 시대가 형벌이 제일 크게 마련입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요5:45)는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 아래서 살던 사람은 그 율법에 따라 정죄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처사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가 같을 수 없으며, 은혜를 강하게 받은 자의 죄와 약하게 받은 자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미성년자와 어른이 같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다른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예컨대 이긴자 시대에 큰 은총을 받고 짓밟아 버린 자의 형벌은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한 자의 형벌보다 몇 갑절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서는 죄인은 어느 시대에 어떤 성령의 은총 가운데 생존하였는가를 참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심판하는 왕에게는 많은 재량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들 왕도 도저히 아량을 베풀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 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12:32)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육적인 예수를 가리키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죄(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사하는 성령을 주실 수 있는데, 이러한 주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즉 육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비방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면 죄를 사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관인 왕들도 이 죄를 저지른 자는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왕들에게는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책에 기록된 자도 인간과 인간끼리 지은 죄는 탕감하여 생명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됩니다. 즉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벧전4:6)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죄를 탕감할 때 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추도에 배입니다.(고전15:29 참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추도예배를 올리면 그 영이 심판대 앞에서 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법정에서 변호사의 변론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자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심판의 광경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베드로가 다섯 번째 왕이 되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어떤 자가

5호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생전에 베드로와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아무래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베드로와 세대가 다른 낯선 자라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책에 추도예배의 기록이 나와 있으면 정상이 크게 참작됩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가령 5호 법정의 심판관이 자기 부친을 위해 13호 법정의 심판관에게 관대한 판결을 요청하여 특혜를 베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성령을 훼방한 죄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의 왕들의 위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아무나 되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주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이천 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성소에서도 순교한 영혼들이 주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의로운 자의 수가 차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계6:11)

Part 05.

진리의 등대



26.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 27. 여호수아의 이적 · 28. 수난과 대속 ·
29. 아볼로에 대하여 · 30. 하늘의 뜻과 땅의 뜻 · 31. 믿음은 뿌리가
튼튼히 박혀야 한다 · 32. 영과 육 · 33.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과 할례
· 34. 신비로운 은혜 체험에 대하여 · 35. 주님은 왜 안식일을 범했는
가? · 36. 음부에 대하여 · 37.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했는가?

Chapter 26.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막상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멍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물음에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좀 더 잘 살려고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서는 고생도 무릅쓰며 때에 따라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값있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요컨대 그 사람의

인생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의 내용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가령 돈을 벌기 위해 산다는 사람, 사랑을 위해 산다는 사람, 명예를 위해 산다는 사람 등등, 사람에 따라 다를 테지만, 이것은 모두가 요컨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임에 틀림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태도입니다. 이 인본주의(휴머니즘)와 신본주의(헤브라이즘)는 세계문화의 두 갈래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으나, 오늘에 와서는 전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 과학을 발전시켜 눈부신 물질문명을 만들어 냈는데, 오늘날 그 문명이 오히려 인류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점점 기독교까지도 침식해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믿는 그릇된 신앙관(信仰觀)을 갖는 경향이 농후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나’를 아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요컨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부른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엡2:8)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십니까요?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인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편이 되어 마귀와 싸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간은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마16:24)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선지자에게 지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인간이 머리로 생각해 내어 쓴 책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데,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창6:6)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움

직이고 인간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속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의 말을 믿고 따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섭섭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람을 내세울 적마다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선 그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다음에는 그 요구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으며, 40억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른 사람은 어느 시대나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본주의의 생활보다 인본주의의 생활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하니, 그것은 불편한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5:15)

이처럼 천국은 좁은 길을 통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짝지어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히 가는 길이 아닙니다. 편안히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히 가려면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과 타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축복은 세상을 등진 사람,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에게 잘 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하늘의 도를 전하신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교권을 쥐고 잘 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으며, 왔다가도 “아이고, 골치야!” 하고 외면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매인 사람들의 머리에는 복음이 잘 들어가 박히게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기보다도 어려운”(마 19:24) 법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천진스러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어설픈 지식이나 작은 능력을 내세우면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순진한 어린이를 좋아하신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세상과 영합하여 구수한 말로 교인을 모아 놓고 2부, 3부의 예배를 보게 하자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며, 또 주님의 지시 내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인기나 끌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으로 끝

나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와의 말씀 한 마디를 어긴 죄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Chapter 27.

여호수아의 이적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이적을 베푼 시기가 몇 차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에 놓였거나 신앙의 혁명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예컨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타낸 이적이나 그 후 약 600년이 지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준 이적이 전자의 경우이고, 주님과 사도 시대 및 오늘날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나타낸 이적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적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이적을 행한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그 이적을 목격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던 당시 20세 이상의 60만 장정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는 모조리 광야에서 쓰러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여리고 성을 무찌른 후에 부딪친 첫 난관은 아이 지방의 정복이었습니다. 이 고장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수비가 엉성하여 정탐꾼을 보내어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장정 이삼천 명 정도면 능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 이방인과 대적해 보니, 예상과는 판관으로 싸움에 밀려 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전리품을 아간이 취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간을 처단한 후에야 여호와께서 노여움을 풀고 아이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전멸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수8:26)

이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가나안의 다섯 나라 임금들(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에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먹만 한 우박을 내려 기브온에서 패주하는 이들 이방 연합군을 전멸시키고, 잠시 지구의 운행을 정지시켜 태양을 공중에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수10:13)

한편 여호수아는 휘하의 장정을 철저히 훈련하여, 그야말로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무장을 튼튼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싸움터에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선 자가 있으면 가차 없이 처단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사 하나님의 신이 같이하여 뒤에서 밀어 주시더라도 인간의 도리는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내맡겨 전쟁 준비를 게을리 하고 낮잠만 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으른 종으로서의 책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방의 다섯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는 마당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기 전에 먼저 손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적이 우세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싸움에 임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수10:8)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서, 이적을 행하여 적을 전멸케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의 하나님의 이적은 일종의 비상수단으로, 별로 환영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은 되도록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밖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궁지에 몰려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내막을 알아야 합니다.

Chapter 28.

수난과 대속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요10:35-36)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지만, 주님 당시에는 참람된 말의 정도를 넘어서 ‘웃기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처럼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이 말 한 마디 때문에 주님에게 돌팔매를 던지고, 침을 뱉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물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떡 두 덩어리와 물고기 다섯 마리로 5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나 남게 하시고, 무수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는 등, 여러 모로 희한한 권능을 행하여 보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매우 신령하여 아무도 감히 책잡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산더미같이 몰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을 위대한 예언자나 선지자 정도로 알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주님은 가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은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온 명문인 레위 지파의 출신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태어나기는 성경에 미리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줄곧 나사렛 동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 통하여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길 예비자가 먼저 오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인 줄 저들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주님은 율법(모세)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등 소위 당시의 세도가들은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도 막상 그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깃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못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오인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대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받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주님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조금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사53:2-3) 그러나 당시에 제사장들도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적, 기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물론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지만, 이런 희한한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는 주님 이전에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른 모세도 있었고,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도 있고,(왕상17:21)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백여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한 엘리사(왕하4:43)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적과 기사도 저들에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만큼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고 해서 저들이 “참람된 말을 한다.”고 공박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이 위대한 선지자라면 납득이 가지만, 하나님의 아

들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모든 언동을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긴가민가했으나, 다른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얼 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존재임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증거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으면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이전, 즉 구약 시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도, 주님이 오신 후에는 주님을 거쳐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며, 따라서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10:1)**

믿음이란 주님과 나 사이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나 사이에 성령으로 연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란 주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소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바울과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주님과 연결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땅에서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은혜의 연결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무후무한 이긴자 감람나무의 역사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역사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죽어서 그 시체가 스테반과 같은 순교자처럼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다른 데서 예수를 수십 년 열심히 믿던 사람도 죽으면 시퍼렇게 변하는데, 이 은총 가운데 접어든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도 이런 놀라운 혜택을 입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무슨 역사라는 것을 잘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주님 당시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요14:12)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긴자가 나타나 역사하는 시대이며,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바로 이긴자의 시대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되 얼마나 믿는지, 한 번 자문해 보십시오. 만일 여기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 물음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대답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 29.

아볼로에 대하여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세 분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가 이들입니다. 이 세 분 중에서 아볼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돋보이지 않지만, 그의 비중은 초대교회에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직접 교류하지는 않았으나, 성경에 정통하고 웅변에 능하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경 말씀을 상고한 끝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이를 증거하여 많은 동조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였습니다.(고전 1:12)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한동안은 초대교회의 3대 거두로 군림했

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적인 예수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못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울은 주님과 영적으로 교류한 계시를 토대로 하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으며, 아볼로는 주님에 관한 성서적인 원리를 토대로 하여 많은 추종자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립과 암투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인물은 ‘할례 폐지론’을 들고 나와 구약의 가르침을 뒤집어 놓은 바울이었으며, 베드로와 아볼로는 바울처럼 남에게 비난을 받을 소리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들어 썼으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베드로와 아볼로는 바울의 산하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갈2:9)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법주의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잡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주께서 등용한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일수록 “이럴 수 있나?” 하고 의심을 품게 되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같은 주의 종으로 바울과 베드로가 한 세대에 상반된 주장을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만 계속해서 새로운 지시를 내려 역사 하였으므로, 처음에는 수세에 몰린 바울은 베드로와 아볼로의 추종자들을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바울의 산하에 하나로 통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하나님께 합당하

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하루에 3천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크게 역사하고, 또 아볼로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임을 증거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하시면서, 다시 바울이라는 죄인을 내세워 탄 소리를 하게 하시느냐? 이것이 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전했습니다. 이것은 난사(難事) 중의 난사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라 해소시키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느 날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진리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볼로에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배워서 잘 알고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물세례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즉 손으로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행19:6) 여기서 우리는 지식에 그치는 기독교와 생명 있는 기독교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꿀을 먹이는 교역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베드로나 아볼로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치고, 깊은 말씀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심령에게 선불리 깊은 말씀을 전하면 혼란을 일으켜 실족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당신께서 움직일 수 있는 날짜가 촉박하여 불가불 깊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14:6)**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적, 기사와 말씀으로 예수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었으나,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존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한 마디에 걸려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자연인(自然人)으로 여겨지는 인물을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예언된 인물이 등장하여 역사하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령의 증거를 앞세우고 역사하더라도 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의 세계를 알기 어려운데다가 깊이 뿌리를 내린 고정관념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Chapter 30.

하늘의 뜻과 땅의 뜻



나는 일찍이 성경에 나온 나팔 소리에 대하여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예고의 나팔’, ‘진격의 나팔’, ‘경고의 나팔’ 그리고 ‘영광의 나팔’이 그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도록 신호로 불게 하겠다고 예고한 나팔이 곧 ‘예고의 나팔’이고,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라는 신호로서 불게 한 나팔이 ‘진격의 나팔’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비를 튼튼히 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불게 한 나팔이 ‘경고의 나팔’이고, 주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울려 퍼지게 될 나팔이 ‘영광의 나팔’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천사의 나팔과 일곱 인을 관련시켜 여러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다.”(마6:10)라고 늘 되풀이하여 간구하는 기도문의 ‘하늘의 뜻’과 ‘땅의 뜻’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 2천 년 동안 무수한 신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왔으며, 또 오늘날도 드리고 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를 7수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수는 완전수로 완성을 의미하며,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쳐진 수로서, 하늘의 조건과 땅의 조건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뜻은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여 새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늘의 뜻은 무엇이고 땅의 뜻은 무엇이며 그 뜻을 이루는 주인공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 마귀의 세력이 침투한 후, 이를 소탕하기 위해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다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해 왔으며, 마지막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그 피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뜻이며, 그 주인공이 바로 주님입니다.(요6:40) 즉 주

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요4:34)는 말씀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하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오늘날 뿔기세텍의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시110:1) 뿔기세텍의 대제사장의 권세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5:7-8)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책을 인계받고 네 생물과 24장로를 거느리고 기도까지도 몸소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주님께 넘겨주었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 대신 마귀와 싸울 권한을 맡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조건이 한결 유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대행하는 권세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전력이 그만큼 강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히5:8-10)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을 주께서 이루시고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으나, 아직 한 가지 큰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일단 마치고 원수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원수를 발등상 시키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땅에서의 뜻이며, 이것은 이긴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이긴자에게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계3:21) 그가 철

장으로 마귀를 질그릇 깨뜨리듯 한다고 했으며, **(계2:27)** 머리에 승리의 금면류관을 쓰고 이한 낮으로 곡식을 거둬들인다고 했습니다. **(계14:16)** 이 모든 일은 물론 주님의 피 권세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장 이천 년 동안 성령을 통하여 꾸준히 역사하고 계시며, 오늘날 이긴자를 내세워 땅의 뜻을 이루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을 보내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이긴자를 배출시켜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세례 요한 때까지는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한 것이며, 주님이 오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이긴자를 배출시키는 길을 닦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3수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4수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온 것입니다. 전자의 주인공인 주님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 짓고, 후자의 주인공인 이긴자는 신약 시대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쳐서 7수가 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되며, 이때 하나님의 뜻은 비로소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낮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다.’ 하니.”(계14:14-15) 이것은 이긴자가 의로운 하늘 군병의 수를 채워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광경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알곡을 거두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두 사람의 이긴자 중에서 한 사람은 뿌리는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거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땅에서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긴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에 보낸 아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긴자에게 일일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긴자는 성경에서 마지막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늘에서는 땅의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가 이웃이 되고, 이긴자에게 말씀 그대로 큰 권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전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상세히 보여주고 가르쳐서 성경 66권의 원리를 밝히고 빈 곳을 메우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발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으나 주께서 만류하였습니다.(계10:4) 그러므로 이 우레 소리의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못하도록 막았을까

요? 그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의 말씀을 터뜨릴 때가 옵니다. 그 내용은
이긴자에게 준 흰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며,**(계2:17)** 따라서 이긴
자의 입을 통하여 듣는 자들이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적당한 시
기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은 비로소 완전히 짝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경륜이 날날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Chapter 31.

믿음은 뿌리가 든든히 박혀야 한다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잘 간수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간수하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일은 어느 정도의 자질만 타고나면 노력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믿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땅에서 육을 입고 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무를 심고 조금씩 서둔다고 해서 얼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를 잘 키우려면 거름을 제때에 알맞게 주어야 하는데, 신앙에도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 거름이 곧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없이는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즉 잘 믿으려면 반드시 연단(시험)이 따릅니다. 이것은 나무가 높이 자랄수록 거센 바람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아무리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하면 산들바람에도 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속이 빈 그릇이 소리가 요란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말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의 기본자세와 관련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밖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될 수만 있으면 매사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이밖에 신앙생활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마6:33)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컨대 주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 역시 말이 쉽지 그렇게 행동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 오면서 언제나 이 두 가지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를 행동에 옮기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조금만 공로를 세우면 남이 알아주기

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이 나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 태도이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위주의 신앙 자세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는 생활입니다. 악을 이기려면 모든 일에 '나'를 나중으로 돌리고, 주님을 앞세워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무의 생명이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뿌리를 보지 않고 열매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합니다. 한데 이것들은 모두가 뿌리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여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즉 그 원천은 어디까지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의 주의 종들은 조금만 크게 역사하면 곧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굵직굵직한 이름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 장본인에게는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주의 종은 뿌리의 역할을 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낮추고 대신 주님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입니다. 신앙에서는 자기 일만 충실히 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남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숨고 남을 드러내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중상모략을 하여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영력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에덴성회보다 더 신령하고 은혜스러운 데가 있어 그리로 간다면 조금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따라 간다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으며, 또 말린다고 될 겁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좋으니 가볼 데가 있으면 다 가보십시오. 나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학식이 풍부한 목회자는 많이 만날 수 있을 테지만, 나를 통하여 나가는 권능과 말씀은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찾아볼 수 있다면 그건 내가 거짓말쟁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격과 학식 -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된다면 벌써 하나님의 뜻은 옛날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종교는 인격과 학식의 차원을 능가합니다. 인격과 학식으로 말하면 나만큼 부족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나가는 것은 온전히 주의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귀한 것이지, 질그릇 자체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천 년 가까이 바울의 신학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바울을 능가하는 말씀을 터뜨리는 주의 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타났던들 오늘날 기독교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시점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하며, 또 자기 신앙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땅에서 자라고 있으며,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가?”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자기 신앙이 자갈밭에서 자라고 있다면, 하루속히 옥토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Chapter 32.

영과 육



영과 육은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판이하게 다릅니다. 육은 영의 그릇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6:63)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명심해야 할 지당한 가르침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석구석 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세계이므로 여기 곧잘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육의 것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함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함정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영의 것을 추구하노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육의 것을 좇고 있지 않나 하고 말입니다. 만일 육의 것을 좇

고 있다면 그는 위선자거나, 적어도 위선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영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육을 위해서입니까? 이 물음은 요컨대 주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로 압축됩니다.

우리는 물론 육을 입고 한 세상을 살아야 하므로, 육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을 도외시하지 않는 것과 육을 위주로 하여 사는 생활태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육을 추구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거나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경우에만 용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추구는 어디까지나 주를 위한 수단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8:5-6) 지당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7:22-24) 바울은 오랫동안 이런 갈등과 고뇌 속에 시달린 끝에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고”(딤후4:7)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길은 구약 시대의 종들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육적으로 축복을 내렸

기 때문에 대체로 화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즉 신약 시대에는 주의 종들이 고생을 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이 바울입니다. 그는 육을 버리고 영을 위주로 살기 위해 고생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풍파 속에서 믿음을 곳곳이 지켜나가야만 비로소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남의 대접을 받으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어떻습니까? 외관상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다 육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온전히 박힐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물질이 넉넉하게 되면 세상으로 흐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남의 처지와 비교하여 곧잘 낙심합니다. 모두가 마음이 병들어 있는 징조입니다. 즉 주를 위해 자기의 환경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그만큼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할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이므로 이를 선용해야 하며, 없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여 은혜 받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므로 이를 십분 이용해야 합니다. 즉 그 가난을 주의 것으로 보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누구데...” 하는 자의식(自意識)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육을 좇는 데서 오는 교만한 생각으로, 은혜 받는 데 큰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육을 좇는다면 그토록 빛발치는 눈총 속에서 도저히 이 역사를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생기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내세워 있게 하십니다. 즉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한 자나 부유한 자를 통하여 이루는 것은 당신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넓은 길을 가려는 생각을 마십시오. 우리는 모름지기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신앙 자세를 버려야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합시다마는, 우리는 그 예술보다 더욱 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Chapter 33.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과 할례



기독교란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하여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더듬어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본위의 종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부르심을 받은 인간 위주가 아니라, 불러 주신 하나님 위주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주객(主客)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연고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시대에 따라 역사하시는 섭리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할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으며,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남자에게 연결된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정한 일을 실천하기에 앞서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으며, 일단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절대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언약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형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님을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낼 언약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과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16:9-10, 22:14-18참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어야하는 무

서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걸리지 않는 자는 건짐을 받고, 걸리는 자는 쓰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응답을 하시려는 것이 그 뜻이자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제쳐놓고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해도 그것은 헛수고에 그쳤습니다. 주님 당시의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이런 헛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아무리 소리 높히 하나님을 불러도, 그 기도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울이 하나님께 올린 정성어린 제사(삼상15:22)와 회심(回心)하기 이전의 바울의 충성(행9:1 이하)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며,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이 이중성에 있습니다. 하긴 동물에게서도 개의 충실함이나 개미의 부지런함 같은 정신 작용의 일면을 엿볼 수 있지만 그것은 본능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등 뒤에서 교묘히 조종하는 것이 곧 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일 경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마귀의 신일 경우에는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신이 서로 인간을 통하여 암투를 계속해 온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고, 이방인의 배후에 마귀의 신이 도사려 서로 겨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방인은 마귀를 힘입어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면 싸움에 지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싸움에서 이기게 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구약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두 신이 겨루는 양상이 다를 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멀리하지 않도록 묶어놓은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떠나서 율법을 생각할 수 없고, 율법을 떠나서 할례를 논할 수 없을 만큼 할례와 율법은 긴밀한 관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할례와 율법은 구약의 골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그들을 가장 개화된 애굽에 인도하였으나, 이들은 다신교(多神敎)의 나라 애굽에 400년이나 정착하여 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종교와 풍습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섬겨야 기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우상에게 절하면서도 마음은 태평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도 그만큼 선, 악의 관념이 흐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라, 말아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정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행동지침으로 제정 반포한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율법은 모세 이후 주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1,400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 준수해 왔으나, 새 율법의 주인 공인 주님 자신도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 아래 태어났으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는 순간, 할례와 율법과 아론의 반차에 속하는 제사장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히5:8-10 참조)

그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토록 오랫동안 지키게 한 할례와 율법을 폐지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떠나가는 마당에서 지상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하늘의 도를 전파할 필요를 느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모세 율법에 미비한 점이 드러나고 부작용도 일어나 새로운 법도를 반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의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상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폐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못미더워 할 것입

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하나의 부질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은 후 자고로 인간이 범죄하여 그 언약을 이행치 않은 일은 허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창 17:7-10)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이 언약도 그대로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만 선지자를 내세워 지시를 내렸으며, 따라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하와의 후손이므로 하나님은 끝내 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갱신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지 않고 마음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을 폐기하고 이방인과 상종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배반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분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비천한 농사꾼이나 어부들을 모아놓고 던진 시골 청년의 이 말은 남을 웃기기

에 꼭 알맞았으나, 사실은 매우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므로 중요한 말씀은 운만 떼어놓고, 바울을 내세워 할례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율법(자유율법)을 반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처음에는 수세(守勢)에 몰려 할 말을 못하고 은인자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폐지시키는 사명을 맡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것으로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행16:3) 바울은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부질없는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잠정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로 부친은 헬라인이고 모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물론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제자로 삼을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남의 이목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할례를 폐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미루어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국법으로 간주하고 지켜왔으며, 이를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국가에 이중으로 범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서는 자가 있다면,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이중 범법자로 간주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사명을 맡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도 그 종을 신중하게 택해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종으로 택함을 입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당시에 일곱 집사의 한 사람이요 ‘주의 증인’인 스테반을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하고, **(행22:20)** 예수를 믿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 버리는 등, **(행8:3)**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발 벗고 나서는 그 뜨거운 충성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울(바울)의 가룩한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에게 일대 경종이었으며, 신앙에 180도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지만, 그는 당시에는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중대한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이상 중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지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몸 바쳐 충성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부덕과 죄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태도를 돌변하여 전에 자기가 잡아 죽이려던 자들의 편에서서 열렬히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몰아세우고, 한편 주의 사도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까 바울은 이 양자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곤욕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베드로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래로 열한 사도와 120문도를 거느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난데없이 나타나 신도들을 상대로 판 소리를 하니 말발이 설 리가 만무했습니다. 즉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불의 성령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지만, 전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반면에, 후자는 자유의 율법을 내세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상으로 보면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자는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사람들에게 안찰하여 성령을 부여하였으나, 베드로는 옛것(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바울은 새것(자유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통과 혁신의 대립으로 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께서 같이하지 않고, 바울은 주께서 같이하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교세는 점점 약화되고, 바울의 교세는 날로 흥성하여, 드디어 베드로는 바울의 주장을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즉 바울의 할례 폐지론이 주님의 지시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바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복음은 전 세계 방방곡곡을 향하여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Chapter 34.

신비로운 은혜 체험에 대하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므로 신앙 가운데 접어들면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긴자 감람나무가 역사하는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가 되면 그 가지들이 마땅히 전무후무한 세 증거(불, 이슬, 생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체험을 다 신령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마귀도 신기한 장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경을 교계에서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영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체험은 성령의 역사로, 사도 시대 이후 근 이천 년 동안 불의 성령을 내리고, 오늘날 이긴자가 역사하는 시대에는 세 증거의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섭리 안에 계신 여러분이 산 체험에 의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닌 게 아니

라, 여러분의 은혜 간증을 들어보면 불을 받아 온 몸이 화끈거렸다는 분, 전신을 생수로 씻어 내리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꼈다는 분, 혹은 단상에 이슬이 뿔뿔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분, 향취를 맡았다는 분, 이 밖에 여러 가지 신령한 체험들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전혀 받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남들은 들로 산으로, 혹은 극장으로 놀러 가는데, 지금 이 시각에 원근 각처에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느낌은 없어도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그 성령을 받은 정도가 강하고 약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성령을 강하게 받았을 때에는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고, 약하게 받았을 때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벼운 미풍은 우리의 피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거센 바람은 피부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강한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앞선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누구나 쉽사리 은혜 체험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역사에서는 힘써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미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방법의 하나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때 정성을 기울이기 때문에 은혜를 쉽사리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를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꼭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고 굳게 마음에 다짐하고 제단에 일찍 나와 앉아 눈을 말뚝거리면서 은혜 오기를 기다리면 오히려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노력 없이는 오지 않지만, 노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신비로운 은혜 체험을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직하는 것이 더욱 소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도 내일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벌써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리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뜨겁게 달아오르던 가슴이 어느새 냉랭하게 식어버려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은혜를 간수하지 못하고 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나서 범죄하면 그 은혜가 곧 끊겨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아주 떠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체험을 한 후에는 범죄하지 말고, 주님께 더욱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열성을 내지 않으면 조만간 그 은혜는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만큼 분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두 유형(類型)으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선 신앙이고 또 하나는 체험에 의존한 신앙입니다. 이 양자는 확연히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자는 이론이 서 있는 반면에 은혜 체험이 부실하고, 후자는 은혜 체험이 많은 반면에 이론이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볼로의 경우가 전자에 속하고, 베드로의 경우가 이 후자에 속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이 양자가 병행되는 경우로, 바울 같은 분이 이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한 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로 신비로운 은혜 체험과 믿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은혜 체험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혜 체험에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기억하시는 줄 알고 교만에 빠지거나,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식이라도 된 줄 알고 낙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주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가까이 좁혀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듬고 은혜로 다지는 것도 요컨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제거하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죄는 주와 멀어질 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에서는 주님과 자기가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아도 세상의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기

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주관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 기도를 할 때 자기가 기도할 내용을 미리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막상 입을 열면 판 소리가 쏟아져 나오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기도의 내용을 미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자기 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자기의 거리가 아주 좁혀져서 세상이 간 곳 없고 주와 자기만 있을 때에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습니다. 미움, 시기, 비방, 중상, 이 모든 것이 다 눈 녹듯 사라지게 마련이며,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Chapter 35.

주님은 왜 안식일을 범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신 33년의 행적은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각각 특색이 있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된 것은 마가복음으로, 거기에는 청년 예수의 인간적인 성품이 비교적 소상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다정다감(多情多感)한 모습과 초인간적인 권능이 제일 돋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로마제국의 지배 아래서 기를 펴지 못하고 억눌려 살아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로마 당국에 아부하여 출세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애국자와 일반 대중은 로마의 사슬에서 풀려나 버젓한 독립 국가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이들이 초인간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예수에게 독립투

사로서, 또는 독립된 새 나라의 왕으로서 큰 기대를 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초연히 떠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구국(救國)에 있지 않고, 구령(救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주님은 오늘날과 같이 교회의 단상에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주로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선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기 위해 신유의 은사를 위시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하고,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이 소문은 삼시간에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왔다 하면 금세 많은 병자들이 줄을 이어 모여들었으며, 성한 사람들은 예수가 병 고치는 이적을 구경하기 위해 역시 떼를 지어 운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서는 병 고치는 일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병을 고쳐 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금세 시시하게 생각하여 뿔뿔이 흩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설교다운 설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껏 비유로 몇 마디 운을 떼고 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치 약장수가 약을 팔기 위해 음악이나 요술을 하여 길가는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나서, 나중에 약을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사라져 버리고 몇 사람 남지 않는 광경을 연상케 합니다. 주님을 약장수로 비유하려

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시의 모습을 좀 더 선명히 머릿속에 그려보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이 거의 다 사라진 쓸쓸한 빈터에 여기저기 들성듬성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열심히 설교하는 주님의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구세주로 받들고 우러러보지만, 당시의 예수는 이웃 사람들에게겐 목수 아저씨이고, 친척들에게엔 형이요 조카이며, 또 친구들과는 네니 내니 하는 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파격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이 콧대 높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바알세불에 씌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이날에는 종들에게도 일체 일을 시키지 않고 경건히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단시되다 못해 마귀(바알세불)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이처럼 모세의 율법을 예사로 짓밟아 버렸을까요? 저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의 라이벌(경쟁자)은 모세였습니다. 주님과 모세를 라이벌 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주님은 모세

를 놀려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 중에 모세를 제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한 종으로, 이사야나 다니엘, 에스겔 등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도 모두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 모세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율법 아래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좇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며, 그 아들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되도록 무시하여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존재임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들이요, 모세는 종이었으니 말입니다. 종보다 아들이 더 큰 존재요, 따라서 아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었으나, 당시의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행위는 헛수고에 그쳤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선 모세보다 얼마나 더 큰 존재인가를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고 5병2어의 이적을 비롯하여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행한 권능도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는 등 어마어마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비슷한 종으로는 인정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여호수아는 태양을 정지시켰다고 해서, 주께서 지구를 송두리째 박살내어 보여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 나온 것처럼, 당신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베풀겠으니,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무슨 소린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시는 것은 일단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연후의 이야기이며, 따라서 땅에 계실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모세보다 큰 존재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습

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일손을 놓고 경건히 보내는 안식일 날,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셨고, 가는 길에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출출하여 손으로 밀 이삭을 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 먹는 것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애교로 귀엽게 보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큰 모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일행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범죄 집단으로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묵인하는 거요?”

주님은 저들에게 대답 대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요?”

저들은 기가 막혀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내 제자가 안식일 날 밀 이삭을 훑어서 요기를 좀 했기로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소.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러나본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요.”(막2:28)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님

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도 거리낄 것 없는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잘잘못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보다 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므로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세보다 월등한 존재이므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세에게 간섭할 수 있지만, 모세는 주님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피 권세로 비로소 지성소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요10:8, 마27:53 참조)

그러니 그 율법으로 주님을 판단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전 2:15)는 바울의 말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갑니다. 이 안식일을 에워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란은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요컨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생기는 영적인 마찰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히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마10:34-35)는 주님의 말씀도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은 사례는 오늘날에도 각 가정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

나, 한 성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런 불화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아니라, 영과 영의 대결입니다. 즉 배후에서 영이 인간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hapter 36.

음부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하라면 해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유한 길, 즉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행자지(自行自止)하면서 이 길을 가기 싫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니, 우리는 괴로워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理性)을 갖고 있으므로 주께서 가라고 하신다고 무작정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길을 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하며,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와 목적이 뚜렷할수록 우리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능히 참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님 이후 이천 년 가까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이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막연히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서 천당에 가고, 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려니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영의 세계를 모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을 굳게 다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좁은 길을 가라니까 가기는 가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므로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열리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오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연히 가다가 도중하차(途中下車)를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얻은 자는 적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성경에는, “죽음 뒤에는 음부가 따른다.”(계6:8)고 지적했을 뿐, 자상히 언급되어 있지 않고, 주님은 오묘한 영의 세계에 대한 상세한 해명은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었습니다.(요16:13) 그리하여 주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독교도들은 이 음부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믿어 왔습니다. 그것은 음부에 대해 가르친 주의 종이 없었기 때문이며, 음부에 대해 가르친 주의 종이 없었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주의 종이 없었다는 해석도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기독교는 양적으로 많이 팽창하여 유명한 신학자나 선교사, 부흥사가 등장했으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의

를 올바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기독교인 알기를 우습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어리둥절하여 “천국? 천국이 천국이지.”하고 대답하거나 “죽어 봐야 알지.”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자상한 분은 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록을 인용하여 “천국은 황금길을 가면서 열두 과일을 따먹고, 변소도 가고…,” 하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단편적으로 언급했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 정도에 따라 천국에 대해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음부에 대해 몇 말씀 더 첨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마 9:24-25)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죽은 소녀를 보시고 “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부활, 즉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누구를 막론하고 (지성소에 가는 순교자나 살아서 주를 믿는 성도는 제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갇혀 있다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반드시 깨어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간혀 있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소멸로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죽은 당사자는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은 죽어서 쓰러진 자기 육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은 실감을 느끼지 못할 테지만, 요즘 심령 과학 책을 더러 들여다보니 그 내용이 내가 이상 중에 본 것과 흡사하여, 사람들이 이런 책을 좀 읽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에 영의 세계에도 감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진 사실입니다. 다만 그 감각의 내용이 다르고 상당히 예리한 것이 특이할 뿐입니다. 가령 우리가 살을 꼬집으면 아픔을 느끼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아픔이 아닌 다른 예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감각 - 시각이나 청각, 후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즉시 두 천사가 와서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안내하거나, 마귀 두 마리가 와서 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음부로 갑니다. 이때 가기 싫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음부에 가면 대왕 마귀에게 보고하며, 이때 죄를 많이 지은 자일수록 환영을 받고, 죄가 적은 사람은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의 명령에 잘 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왕 마귀의 명령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가두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는 그 음부를 주님이 열 때까지 그곳에서 심

판 때까지 대기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가두는 것은 이처럼 마귀가 하지만, 여는 것은 주님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이 대기하는 기간은 지상의 시간으로 따지면 수만 년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부에서 자는 동안은 시간관념이 없으므로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음부에 갇혀 있는 영들은 언제 놓여나게 될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그때 비로소 주님은 음부의 열쇠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계10:7 참조) 그러니까 주님은 음부를 열쇠로 열고 싶어도 마음대로 열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까요?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마22:44) 주님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왕 노릇하시지만, 마귀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꺾어야만 비로소 그 속에 갇힌 영들을 꺼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세력을 꺾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주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당신의 종을 내세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계2-3장)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되찾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되찾으려면 마귀를 무찔러야 합

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에게 계속 작전 지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마귀를 무찌르지 않고도 음부의 영들을 마음대로 끄집어 낼 수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를 믿노라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척척 이루어질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소탕해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인간의 영을 마음대로 음부에 가둘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영들은 지금도 일곱째 나팔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hapter 37.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했는가?



나는 전에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앞선 역사와 나중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불신자를 하루에 3,000명이나 주 앞으로 인도할 때의 기세는 대단했으며, 따라서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한 바울은 기껏해야 하루에 열두 명 가량밖에 전도하지 못하여 매우 고전했으나,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를 따르던 신도들은 결국은 바울의 산하에 통합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고전15:10)** 바울이 한 일이 주님께 더욱 합당하고, 그것이 주의 뜻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의 수제자로서 주님께 남달리 충성을 다하였으나, 주님 생전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 앞에서 “주님은 구세주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마16:16)이라고 고백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마26:33)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마26:75)

그럼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였을까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기거를 같이하면서 5병2어의 이적을 비롯하여 많은 기사를 눈으로 보고, 신령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데는 이의(異議)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유는 무지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야만 했으며, 그 독생자는 어찌하여 인간과 똑같은 육을 입어야 하고, 독생자가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어디 있는지를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언동이 뛰어났을 뿐, 육적으로는 어느 모로 보나 자기와 다를 바가 없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 점에 대해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언제나 긴가민가하여 의혹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입으로나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주님은 별로 내색하지 않았으나,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주님의 심경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제자들에게도 아들 행세를 할 수 없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은 아직 당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다는 안타까운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제대로 행세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웠던 직접적인 동기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요컨대 주님의 움직임에 석연치 않은 일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여자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의 세도가나 부유층에게 외면당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적지 않은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달라 마리아와 자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한 기생이므로, 점잖은 사람이면 누구나 드러내놓고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처지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런 부류의 여자와 상종한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저마다 웅성거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물가에서 이방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서슴지 않고 물을 받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교 율법으로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새의 속된 말로 하면 대폿집 접대부와 비슷한 여자였습니다. 주님이 이런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물까지 받아 마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은 또 웅성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들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들은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는 데서 오는 웅성거림이요 의심인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주님의 존재를 100% 분명히 알았던들 “우리는 안 되지만 그런 일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할 수 있으며, 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리송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느꼈고, 의혹을 느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컨대 자기의 척도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판단하는 데서 오는 폐단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언동을 선지자의 차원에서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움직임을 올바르게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척도가 다르니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무지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가불 선지자의 선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요16:12)고 말씀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당신에 관한 일을 많이 의탁하였습니다.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16:12)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돌보다도 더 딱딱하여 좀처럼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소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요컨대 주님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진자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일단 알고 있는 것으로 자처할지 모르지만, 그것

은 하나의 관념(생각)에 그치고, 실제로 하나의 신념, 즉 믿음으로 굳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경우처럼, 이긴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차원에서 움직이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긴자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증거를 보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긴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적을 일으켜 온갖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긴자임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소의 이적이나 기사는 여느 교역자들도 할 수 있으므로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일으킨 이적과 기사는 주님 당시를 방불케 하여 그 위세는 3년 동안에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 자연인(自然人) 아무개가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일으킨 역사였습니다. 즉 주께서 이긴자 감람나무의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보여 준 놀라운 이적이요, 기사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일찍이 상상도 못한 은혜, 가령 이슬 같은 은혜가 제단에 뿔뿔이 내리고, 안찰로 마귀를 쫓아내고, 향취가 진동하고, 설교하는 장면을 촬영하면 천사가 호위하고 불기둥이 쪽쪽 뻗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또한 신유의 은사도 강하여 무수한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 병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무려 수십 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못 사람들이 은혜의 창과에 젖어 기뻐서 미친 듯이 날

뛰며, 집을 팔아 바치고, 가락지를 뽑아 현금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그를 따랐으며, 무수한 총각 처녀들이 주를 위해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역사는 어떻게 되었으며, 또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의 종을 구세주같이 떠받들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와 원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사명은 이미 끝났지만 그를 통하여 내린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그는 성경에 예언된 이긴자 감람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나는 그 밑에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나, 저렇게 처신하나, 하고 의아하게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이제 와서 내가 그 위치에 서서 생각해 보니, 그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하나 납득이 갑니다. 우리는 인간 아무개는 부인해도 그를 통해서 내린 보혜사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박 아무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긴자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수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계21:7) 그러므로 이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긴자를 가리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21:7)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긴자의 아버지라고 사도 요한에게 언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긴자를 통하는 것이 주님께 이르는 지름길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전에도 여러 번, 한갓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인간 이영수를 보지 말고, 이영수를 들어 쓰시는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유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못난 것을 앞세워 이모저모로 간섭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간섭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처럼 나를 가까이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나설 엄두가 나겠습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일일이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은 나의 큰 밑천입니다. 그토록 빗발치는 비난과 증상 속에서 이것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을 것입니다. 나는 적당한 시기에 그 내용을 활자화하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